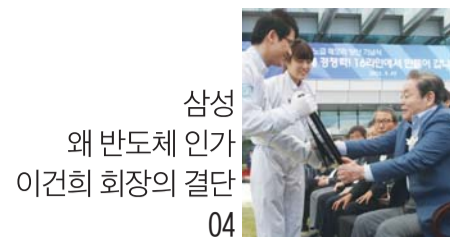


9일 Market Index			
코스피	5778.01	코스닥	1076.00
	(-94.33)		(-13.85)
금리	3.338	환율	1481.45
	(+0.023)		(+10.85)



숨통 트이나 했더니... 산업계는 '살얼음판'

2만원대 요금제로 5G 데이터 무제한

종전협상 앞두고 호르무즈 불통 기업들, 공급노선 非중동 변경 국적선 26척 호르무즈에 발 묶여 美-이란 '10개 항 종전안' 입장차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고사 직전이던 산업계에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쟁의 핵심 변수는 하나도 정리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생산체계를 갖춘 기업들은 부품 등 공급 노선을 비중동항로로 일단 바꾸는 등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의 통제 속에서 호르무즈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조건부 개방인 만큼 10일 개시하는 종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9일 업계에 따르면 휴전 선언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도 호르무즈해협 내 안전한 통항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적선 26척 중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전무하다. 길은 열렸지만 미국과 이란의 발표를 보면 후속처리가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완전 개방을,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보기에 발표 이전과 바뀐 게 없는 상황이다"며 "선원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부의



8일(현지 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소방대원과 구조대, 자원봉사자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파트 잔해 속에서 작업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이번 휴전의 대상이 아니며 레바논은 헤즈볼라를 상대로 공습을 벌였다. /AP·뉴시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동하기보다 안전이 확인된 후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이번 휴전으로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중재안에는 휴전 이후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단계적 접근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만큼 합의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 이란이 10일부터 파키스탄에

서 종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양국의 견해를 고려하면 쉽지 않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로 묘사하고, 이란이 미국이 이미 수용했다고 주장하는 '10개 항 종전안'에 대한 입장도 양측이 서로 배치된다.

이란은 종전안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 허용 ▲호르무즈 해협 계속 통제 ▲중동 지역 미군 철수 ▲대(對)이란 제재 해제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미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다. 특히 우라늄 농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전쟁 명분으로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급락하며 안정세를 보이지만 국내 산업계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인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SK텔레콤 정재현, KT 박운영,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민생 안정과 미래 네트워크 투자를 골자로 한 대대적인 통신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자리는 특히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취임 이후 정부와 이통3사 수장이 처음으로 모인 공식 석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정부와 통신3사는 모든 LTE와 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별도 요금 없이 기본 서비스로 포함하기로 했다.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일정 속도(400kbps)를 보장하는 이 옵션은 기존에 월 5500원을 지불해야 했던 부가 서비스였다. 이를 기본화함으로써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이통3사, 통신정책 변화 예고 월 5500원 지불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서비스 전환... 717만명 혜택

기아, 5년간 49조 투입... 친환경차·로보틱스 강화

2026 CEO 인베스터 데이 전동화 등 미래사업에 21조 투입 글로벌 판매량 413만대 목표 상향

기아가 오는 2030년까지 총 49조원을 투자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 전략 강화에 나선다. 특히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하며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413만대로 목표를 상향했다.

기아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6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기아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기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9조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21조원을 전동화,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에 투입한다. 이는 기존 계획(2025~2029년) 대비 7조원 가량 증가한 규모로, 미래 사업 중심으로 투자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아는 완성차 판매와 관련해선 2026



기아 송호성 사장이 '2026 CEO 인베스터 데이(CEO Investor Day)'에서 기아의 중장기 사업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년 335만대(시장점유율3.8%)에서 2030년에는 판매량 413만대, 시장점유율 4.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30년 실적 목표는 매출액 170조 원, 영업이익 17조 원, 영업이익률 10%로 설정했다.

기아는 글로벌 시장 판매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9종과 하이브리드 13종의 라인업을 확보해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판매 목표는 내연

기관 198만대, 하이브리드 115만대다. 내연기관은 올해 출시한 텔루라이드와 셀토스를 비롯해 핵심 차종을 지속 투입하고, 하이브리드는 텔루라이드 HEV, 셀토스 HEV를 시작으로 K4 HEV 등을 순차 출시해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픽업은 2025년 타스만 출시로 글로벌 신형 시장에 진입한 데 이어 2030년 북미 핵심 시장 공략을 위한 바다 온 프레임 기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라인업도 추가한다.

전기차 라인업도 2026년 11개 모델에서 2030년에는 승용 2종, SUV 9종, PB V 3종 등 총 14개 모델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 100만대, 시장점유율 3.8%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PB V는 지난해 출시한 최초 모델인 PV5를 전 세계 시장에 본격 출시해 연간 5만 4000대를 판매한다. 이후 PV7과 PV9으로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40가지 이상의 바다 타입을 통해 고객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역별로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4

종에서 2030년 8종으로 확대하고 SUV 볼륨 모델 육성, 픽업 시장 진출을 통해 2030년 102만대, 시장점유율 6.2%를 목표로 잡았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유럽에서는 2030년 74만6000대, 시장점유율 4.8% 달성을 제시했다. 인도에서는 2030년 전기차 라인업을 10종으로 확대하고 41만대, 점유율 7.6%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기아는 미래 성장 동력인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분야에도 힘을 쏟는다. 기아는 2028년 아틀라스를 HMGMA에 본격 투입한 데 이어 2029년 하반기 기아 조지아 공장에 투입하고, 글로벌 공장으로서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또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과 엔드투엔드(E2E) 기반의 자체 자율주행 모델을 통해 2027년 말 SDV를 개발하고 2029년 초 레벨 2++ 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고령층을 위한 통신 복지도 대폭 확대된다. 65세 이상 가입자 중 음성이나 문자 제공량이 제한된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제공량을 늘려주고, 향후 신설되는 모든 요금제에는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40만 명의 어르신이 연간 59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복잡한 요금 체계를 슬림화하기 위해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3만 원대 후반에 형성되었던 5G 요금제 문턱을 낮춰 2만 원대 신규 요금제를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지나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내년 시행될 '디지털 포용법'에 발맞춰 취약계층 지원 체계 구축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정윤경 "장애인 e스포츠 인재 육성·지원체계 마련" /사진 뉴시스
▲이 대통령 "국정 속도 2배 올리면 8년 2개월 남아...비상시기 틀 바꿔야"

▲수성구 재건축·재개발 힘 실은 김대현, 신속추진위 설치[6·3대구]
▲한미, 대규모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실시...전작권 전환 대비 韓 주도

▲김진균 "충북형 학교 시설 개방 거버넌스 구축"
▲정부, 드론 국가 대응체계 설계... "범정부 통합 구축"

李 “중동전쟁, 경제에 큰 위협… 근본적 체제 전환 필요”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중동사태 대응·지속가능 성장 논의
최우선 과제에 생산적 금융 전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전쟁 상황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는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위기의 파도를 넘어,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경제 자문기구인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중동 전쟁 여파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중기적·장기적

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서는 경력을 갖춘 청년을 요구하지만, 청년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기회를 국가 공

동체가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청년 취업 정책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중동 상황과 관련 혁신을 통한 ‘대체 불가한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아시아시피 이 전쟁은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닐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안전 통행이 가능한 해협에서 차단기가 있는 톨게이트로 바뀌고 있고, 미국은 전쟁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규칙이 무너지는 분절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체불가성을 확보해 상대가 쉽게 배제하거나 압박하기 어려운 전략적 위치에 서야 한다”며 “기존의 중견국론이나 선진국론과는 접근이 다르다.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산업 정책에서 경쟁 우위뿐 아니라 대체불가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를 위해 소액 투자자들을 위

한 배당소득세를 비롯해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도 거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못 하게,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 같다”면서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아차피 주택 문제의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정부, 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동결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구윤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 총력”

석유류 3차 최고가격제에서는 리터(1)당 가격의 수위가 올라가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10일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할 3차 최고가격제를 2차 때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1)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10일 0시를 기해 적용됐다.

정부는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하에 국제유가와 수급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급관리 기조를 유지했다”며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민생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경유의 경우, 화물차운전자, 택배기사, 농민·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내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

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6차회의’를 주재하고 3차 최고가격제 관련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그는 “정유업체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휴전에도 곳곳 포화… 최종합의 가시받길

미·이란, 휴전 조건 두고 입장 차

‘휴전’이라는 문구가, 공표 이후 24시간도 채우지 못한 시점에 퇴색했다.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레바논 영토에 맹폭을 가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기는커녕 돌아서진·출입하라는 등 계속 틀어막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건 페르시아만 주둔 미군 병력의 철수 요구를 일축했다.

중동 사태가 여전히 가시밭길에 놓여 있음을 방증하는 단 하루, 일련의 사건들이다. 게다가 이란 정치권 내 강경파는 전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항전 의지가 견재함을 자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8일(현지시간) 연설에서 “남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손가락을 방어쇠에 얹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의 발언은 이스라엘방위군의 레바논 공습 직후 공개됐다. 레바논 보건부 집계 따르면 이날 곳곳에 가해

진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최소 182명이 숨지고 890명이 부상했다. 베이루트와 레바논 남부, 동부 베카계곡에 10분 만에 100여 곳을 집중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은 합의된 휴전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이 들어 있다며 향후 협상을 이어갈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란은 기뢰 위험성을 들어 우회 항로를 제시했다.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이란 항만당국은 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혁명수비대 해군과 협조해 대체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페르시아만 전쟁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주요 교통로에 대한 기뢰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적은 글에서 “미군 함정과 항공기, 병력, 탄약, 무기체계는 진정한 합의에 도달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에 그대로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휴전-공격 반복… 국제유가 불확실성 지속

호르무즈 통항 불안 우려에 소폭 반등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소식으로 10% 이상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다시 소폭 반등했다.

9일 산업통상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 따르면, 전쟁 발발 42일째인 현재 중동 정세는 휴전 소식과 재공격 보도가 이어지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Brent) 유는 배럴당 96.70달러(+2.1%),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는 96.66달러(+2.4%)를 기록했다. 이는 전쟁 이전인 2월 27일 대비 각각 33.4%, 44.2% 상승한 수준이다. 전날(8일) 휴전 소식으로 대폭 하락했던 유가는 로이터 등 일부 외신의 ‘호르무즈 통항 중단’ 보도가 전해지며 다시 상승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

다. 9일 7시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979.85원, 경유는 1971.59원으로 전일 대비 각각 0.11%, 0.10% 상승했다. 전쟁 전보다 각각 17.0%, 23.4% 올랐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유조선 7척(국적선사 4척, 비국적선사 3척)의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외교부 및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사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통항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내기업, 물류경로 다변화 등 지속 대응

>> 1면 ‘숨통 트이나 했더니’서 계속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않은 상황에서의 2주간의 짧은 휴전으로 해상 물류와 에너지 수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고, 협상 결렬 시에는 긴장이 재차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당분간 원자재 비축, 대체 조달선 확보, 환해지, 물류 경로 다변화 등 기존 대응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9일 현대차는 호르무즈 해

협을 통과해온 부품 공급 경로를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로 변경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화 되면 국내 산업계는 원가 안정과 공급망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일시적 충돌 봉합에 그칠 경우 국내 기업들은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비용 계획 등을 새롭게 수립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출산·고령화에 '연금 흔들'... 해외는 보험료·수급연령 손질

연금과 생존전략

③ 주요국 개혁 흐름

1988년 도입, 日·독일 참고 설계 기대수명 70세, 출생률 1.55명

스웨덴, 보험료 18%·보증연금 보완
독일, 소득대체율 인하·수급연령 상향
일본, 보험료 18.3%·자동조정 도입



지난해 3월 '제3차 연금개혁' 통과 이후 여·야 소속 3040세대 의원들이 연금개혁 과정에서의 청년 세대의 이익 반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됐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적연금제도인 독일의 '노동자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00년째 되는 해였다.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이 주요국과 비교해 늦었던 만큼, 국민연금은 해외의 선진적인 운영 사례를 참조해 제도를 설계했다. 도입 과정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중규모 이상 사업장부터 제도 가입을 의무화했고, 급여액은 독일의 사례를 참조해 납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비례한 소득비례급여 형태를 채택했다.

한계도 분명했다. 1988년에는 그 해 태어난 출생자의 기대수명이 70.7세에 불과했고, 2차 베이비부머(1964년~1974년생)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사회의 부양 여력도 낮았다. 합계출생률은 산

아제한정책에도 1인당 1.55명 수준을 기록해 2025년의 0.80명보다 약 2배 높았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로, 소득대체율은 70%로 설정됐다. 지난해 제3차 연금개혁 이후 재산정된 보험료율 13%(2033년 기준)와 소득대체율 42%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다.

거듭된 연금개혁에도 국민연금의 전망은 밝지 않다. 국내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인구 재생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드는 데도 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늘어난다. 연기금이 운용 과정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난해에는 1458조원의 적립액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도 이르면 오는 2070년 이전에 전부 소진될 수 있다

는 전망도 나온다.

◆ 연금개혁, 해외 성공 사례는?

인구구조 변화를 이유로 '연금개혁' 과제를 마주한 나라는 한국 뿐만이 아니다. 한국보다 먼저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주요국들은 이미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현재도 연금개혁의 과정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조해 시행 착오를 줄여야 하는 이유다.

스웨덴은 1960년부터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기초 연금제도와 부분적립 형태의 비례연금 제도를 병행해 운영했다. 그러나 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지적사항과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1998년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스웨덴은 고용주가 근로자 소득의 13%만큼 부과했던 연금보험료를 18%까지 높이고, 고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9%씩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연금 지급액도 기여액에 따라 지급액을 돌려받는 확정기여형(DC)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독일(당시 서독)은 1972년 자영업자·주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공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조기노령연금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금 급여 수준을 확대했다. 이러한 개혁은 사회보장의 확대를 가져왔지만 연금재정의 부담을 늘렸고, 독일 통일(1990년) 이후 서·동독 간의 사회보장 제도 차이를 해소하고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1992년 연금개혁의 배경이 됐다.

독일은 1992년 연금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총임금에서 순임금으로 조정했으며,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감액지급제도를 도입했다. 단, 출생 및 육아를 보조하기 위한 '출산 크레딧제도'와 '양육 크레딧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한국보다 이른 시기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공적연금의 보장을 축소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연금개혁으로 기존 13.6% 수준이었던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인상돼 2017년 18.3%까지 올랐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를 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자동조정장치)'도 도입했다.

◆ 연금개혁, 사회적 이해 필요

연금개혁에 실패한 사례도 다수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특정 세대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연금개혁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을 2년동안 일시중단했다. 2023년 9월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 뒤 2년 2개월 만의 중단이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 중단으로 2년 동안 22억 유로(약 3조8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칠레는 지난 1981년 세계 최초로 공적 연금을 폐지하고 민간운용사 중심의 적립식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면 속에 가입률과 수익률이 모두 저조했고, 수급자 간의 수급액 차이도 커졌다. 노인 빈곤율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차 연금개혁 직후 야당을 중심으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논의가 활성화됐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가능한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1분기 불장에 국민연금 80조 벌었다

5% 이상 보유종목 평가액 323조대
삼성·SK하이닉스 비중 62.7%

올해 1분기 국내 증시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도 약 80조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를 공시한 상장사(291곳)의 평가

액은 323조7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액 급등 중심에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7.75%로 동일하지만, 평가액은 지난해 말 54조9906억원에서 지난 7일 90조1223억원으로 63.8% 급증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지분율도 7.35%에서 7.50%로 늘었으며, 평가액도 34조8135억

원에서 48조9850억원으로 40.7%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국민연금의 전체 주식 평가액 증가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62.7%에 달한다.

올해 1분기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으로 신규 편입된 종목은 22개이며, 5% 미만으로 하락한 종목은 15개로 집계됐다. /신혜은 기자 godhe@



홍라희, 삼성전자 3조800억 지분 매각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12조원대 상속세 납부 마무리 수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3조원대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0.25%)를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가는 약 3조800억원이다. 이번 주식 매각으로 홍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율

은 1.49%에서 1.24%로 줄어든다. 홍 명예관장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6차례에 걸쳐 분납 중인 12조원대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를 앞두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홍 명예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5년에 걸쳐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왔고, 4월이 마지막 납부다. /양성운 기자 ysw@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이 나면
일단 대피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

다음 세대 준비한 '타이밍 경영'... 추격자 넘어 주도자로 '우뚛'

42년의 베테 삼성은 왜 반도체를 택했나 ② 이건희 회장의 결단

이병철 선대회장이 뿌린 반도체의 씨앗은 10년 만에 세계 시장의 판을 뒤집는 결실로 이어졌다. 일본이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던 1990년대 초, 삼성은 후발주자에 불과했지만 이건희 회장 시대의 선제 투자와 초격차 전략은 결국 세계 1위로 향하는 분기점이 됐다.

1987년 회장 취임 당시부터 이건희 회장의 문제의식은 분명했다. 전자와 반도체를 그룹의 미래 축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삼성의 성장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취임식 사진 속 차분한 표정과 달리 내부에서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형성돼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전자와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던 시기, 삼성은 여전히 후발주자에 머물러 있었다.

이 위기의식은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신경영 선언으로 폭발했다. "파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강한 메시지는 단순한 조직 혁신 구호가 아니었다. 품질과 속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먼저 준비하는 방식으로 삼성의 사업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이었다. 이 흐름은 반도체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메모리 시장에서 단순 추격자가 아니라



2011년 9월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 메모리 16라인 양산 기념식에서 (故)이건희 선대회장이 임직원 대표로부터 1호 반도체웨이퍼를 전달받고 있다. /삼성전자

1990년대 초, H 메모리 시장 장악
1993년 프랑크푸르트서 신경영 선언
불황 속에서도 16라인 반도체 증설
PC 시장 급성장으로 폭발적 수익

한 세대 앞서 움직이는 체질이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출발점은 1980년대 초 초고밀도 집적회로(VLSI) 사업 진출이다. 당시 미국과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던 시기, 삼성은 명백한 후발주자였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큰 목표를 가져라!"라는 구호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추격자가 아니라 시장의 판을 바꾸는 기업으로 올라서겠다는 선언이었다.

당시 현장은 사실상 전쟁에 가까웠다. 내부 기록과 관련 회고를 보면 임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개발 일정 속에서 주 80시간을 넘나드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일정이 촉박할 때는 100시간에 가까운 근무도 감수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건 전 투구나, 전쟁이구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 업체 추격을 위한 총력전이 벌어졌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16

라인 반도체 기공식이었다. 업황이 둔화되는 국면에서 대규모 라인 증설을 밀어붙이는 결정은 내부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시장이 흔들릴 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이른바 '타이밍 경영'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 방식은 여기서 더욱 선명해진다. 그는 시장의 현재보다 다음 세대를 먼저 봤다. 업황이 꺾일 때 움츠러들기보다 오히려 설비를 늘리고 차세대 제품 개발에 선제적으로 베풀는 방식이다. 반도체 사업을 두고 "세 번은 망할 뻔했다"는 회고가 나올 만큼 고위험 사업이었지만, 동시에 그룹의 미래를 바꿀 가장 큰 성장 산업으로 판단한 것이다.

결정적 분기점은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였다. 당시 일본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업황 둔화를 예상하고 D램 증설 속도를 조절했다. 반면 삼성은 오히려 라인 증설과 차세대 제품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시장이 흔들릴 때 더 크게 베풀는 이른바 '타이밍 경영'이 본격적으로 작동한 시점이다.

결과는 시장 판도를 뒤집었다. 예상과 달리 개인용 컴퓨터(PC)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D램 수요가 폭발했고, 일본 업체들이 공급에 주춤하는 사이 삼성은 대

량 생산 능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불황기에 단행한 선제 투자가 호황기에 폭발적인 수익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 흐름은 1992년 세계 최초 64MD램 개발로 이어졌다. 삼성은 이 해 D램 시장 세계 1위에 올랐고, 1993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전체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반도체 사업 진출 선언 이후 불과 10년 만이었다. 일본이 지배하던 글로벌 메모리 산업의 질서를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뒤집은 상징적 장면이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강조한 것은 단순한 양적 성장만이 아니었다. 품질과 속도, 그리고 세대 전환의 선점이었다. 삼성 반도체 사업은 이때부터 '한 세대 먼저' 움직이는 체질을 갖추기 시작했다. 후발주자였던 삼성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의 AI 메모리 경쟁 구도 역시 이러한 경영 유산의 연장선에 있다. 이건희 회장 시대 형성된 초격차 DNA는 이후 삼성의 메모리 1위 체제를 30년 넘게 떠받치는 기반이 됐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57조2000억원의 잠정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낸 배경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세계 첫 CDMA, ICT 강국 기틀... AI고속도로로 맥 잇는다

(코드분할다중접속)

SKT, CDMA 상용화 30년 세계 이동시장 주도권 잡은 '신의 한수' 민관 합동 성과... 경제적 파급 '압도적' 30년 성공 바탕 'AI 컴퍼니' 전환 앞뒤

SK텔레콤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 30년을 계기로 통신 인프라 중심 사업자에서 'AI 인프라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낸다.

SKT가 8일 서울 을지로 삼화타워에서 CDMA 상용화로 촉발된 국내 통신산업의 역사를 되짚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날로그 통신의 변방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거듭나게 된 지난 30년의 여정을 반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대한민국 통신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뀐 결정적 순간은 1996년 1월 3일 오전 9시 1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



1996년 4월1일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전화 개시식에서 시험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SKT

시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남인천 영업소에서 개통된 세계 1호 CDMA 가입자의 탄생은 단순한 서비스 개시를 넘어,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던 이동통신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신호탄이었다.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은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고유 코드로 구분하여

러 사용자가 간섭 없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게 하는 2세대 이동통신(2G) 핵심 기술이다. 1990년대 초반, 전 국민의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은 용량 부족과 통화 품질 저하라는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다. 당시 글로벌 시장은 이미 시분할 다중접속(TDMA) 방식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우리 정부와 통신업계는 기술 자립 가능성과 수용 용량이 훨씬 큰 CDMA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주도권을 잡은 '신의 한수'가 되었다.

이 역사적인 성과는 유례없는 민관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이동통신을 필두로 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사투를 벌인 끝에 1996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특히 1994년 선경그룹(현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시가의 4배에 달하는 과격적인 가격에 인수하며 탄생한 SK텔레콤은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로 상용화 시기를 대폭 앞당겼다. 삼성전자가 첫 CDMA폰인 'SCH-100'을 출시하고 SK텔레콤이 전국망을 빠르게 구축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동통신이 전 국민의 보편적 인프라로 자리 잡는 시대를 열게 되었다.

CDMA 상용화가 불러온 경제적 파급

효과는 실로 압도적이었다. 정보통신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996년 2.2%에서 2025년 13.1%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수출 지형 역시 완전히 재편되었다. 반도체와 단말기를 포함한 IT 산업 수출액은 1996년 412억 달러에서 지난해 2643억 달러로 약 6.4배 증가하며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의 CDMA 상용화는 2024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로부터 트랜지스터 발명이나 인터넷 탄생에 비견되는 기술적 성과인 'IEEE 마일스톤'으로 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그 가치가 높다.

이제 SK텔레콤은 지난 30년의 성공 DNA를 바탕으로 'AI 컴퍼니'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무대에 섰다. 과거 CDMA라는 과감한 선택이 전국을 연결하는 '통신 고속도로'를 열었듯이, 이제는 데이터와 AI를 실어 나르는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국가적 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LG, 멀티모달 AI 모델 '엑사원 4.5' 공개

산업현장 복합문서 추론 '강점' 벤치마크 점수 공개... 경쟁력 입증

LG AI연구원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이해하고 추론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엑사원(EXAONE) 4.5'을 공개했다. 9월 LG에 따르면 '엑사원 4.5'는 LG

AI연구원이 지난 2021년 12월 국내 최초 멀티모달 AI 모델 '엑사원 1.0'을 개발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비전 인코더와 거대언어모델(LLM)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한 비전-언어 모델(VLM)이다.

특히 '엑사원 4.5'는 계약서, 기술 도

면, 재무제표, 스캔 문서 등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다루는 복합 문서를 정확하게 읽고 추론하는 능력에 강점이 있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4.5'의 멀티모달 AI 모델의 시각 처리와 추론 성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점수 결과를 공개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엑사원 4.5'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성능을 측정하는 5개 지표 평균 77.3점을 기록해 미국 오픈AI 지피티5-

mini(73.5점), 앤트로픽 클로드 소넷 4.5(74.6점), 중국 알리바바 쿼엔3 235B(77.0점)를 모두 앞섰다.

일반 시각 이해를 측정하는 3개 지표와, 전문 문헌 속 복합 정보를 읽어내는 문서 이해 및 추론 성능 평가 지표 5개를 포함한 13개 지표 평균 점수에서도 지피티5-mini와 클로드 소넷 4.5, 쿼엔3-VL을 상회하는 성능을 보였다.

특히 코딩 성능 대표 지표인 라이브코

드벤치 v6에서는 81.4점으로 구글의 최신 모델 젤마 4(80.0점)를 넘었으며, 복잡한 차트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ChartQA Pro에서는 62.2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LG AI연구원은 한국어와 영어 외에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베트남어까지 공식 지원 언어를 확장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선원 귀환 최우선... 이 대통령, 중동 리스크 총력 대응 주문

외교역량 동원, 국제사회 협력 지지
원유·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 당부
지방투자 확대·재정 우대정책 지속
포괄임금제 금지·초과근무 수당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과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우리가 가진 외교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달던 중동 상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긴 이르고,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



지난 1일(현지 시간) 인도 뭍바이의 뭍바이 항구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는 인도 국적 LPG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 /AP·뉴스시

지 말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처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

대 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역시 지속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지방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미약하지만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이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런 흐름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격려했다.

또 “무엇보다 지방우대 재정, 지방우선 정책의 기초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같은 대규모 지방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에서도 지방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하지 마라”면서 “누구 담당인지 모

르겠는데 연장, 야근, 주말 이런 것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공무원 초과근무 최고 한도를 언급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규정에 대해 “초과근무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 데 없이 초과근무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초과근무 한도를 채워 보상받는 관행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문화도 좀 바꿔야 한다. (초과근무) 제한을 해놓고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다 초과근무 하고,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하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이상하다”며 김실장에게 “개선책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하정우 부산 출마설에李 “넘어가지 말라”

정청래 대표 “당에서 필요한 인재”
하 수석 “당분간 휴서 일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에서 필요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구개발(R&D)을 비롯한 국가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하던 중 하 수석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은 말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을 ‘하GPT(하정우+챗GPT)’로 부르며 “하GPT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에 하 수석이 “그러게 말합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하 수석 부산 출마설 때문이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부산 북갑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하 수석이 여기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조승래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

민주당 사무총장은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제의하기도 했고, 전날(8일) 정청래 대표도 하 수석에게 출마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에도 하 수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전남 여수 서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듣고 “대통령께서 당의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는 농담으로 말씀하셨느냐”면서 “그럼 저도 농담으로 말하겠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하 수석이 국

민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줄 책임자라는 것이고, 당에서는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출마 불허’라고 해석했다. 하 수석의 보궐선거 차출을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하 수석 역시 청와대에 잔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정우 수석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참모가 먼저 ‘한다, 안 한다’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여기(청와대)서 더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출마 권유는) 당의 입장이고, 대통령은 이런 요청들을 포함해 지역균형발전 등 더 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대통령이 ‘정해진 게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다면 청와대에 조금 더 남아서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는 쪽을 선택할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일부에서 ‘출마가 확정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당의 요청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출마가 결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시

국힘 공천 갈등 수면위로... 최고위서 충돌

공천 과정 공정성·전략 부재 비판
최고위원 사퇴 규정 관련 사과도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공개 회의에서는 공천을 신청한 최고위원들이 상대 후보 의혹을 제기하고 경선 과정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내용이 공개돼 “당원께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나왔다.

경북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쟁자인 이철우 경북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 이철우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돼 본선에 진출하면 선거기간 내내 검찰의 기소, 좌파 언론과 민주당의 파상 공세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지사 공천을 신청한 양향자 최고위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경기지사 후보 추가 공모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공관위는 좀 더 인지도 높은 인사를 찾겠다며 무작정 결정을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신청자의 위상과 경쟁력을 쪼그라뜨렸다”며 “이런 패배주의와 비상식 때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따위에게 ‘니들은 아예 후보도 내지 마라’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점성 정책위의장은 당원들을 향해 ‘최고위원 사퇴 후 출마’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을 사과했다. 김재원·양향자 최고위원이 공천 신청과 동시에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고위원회의가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했지만, 설마 이런 사태가 발생하겠느냐는 안이한 인식으로 규정을 두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당의 여러 노력이 후보 개인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공천 과정에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당을 위해 걸은 분들이라면 지방선거 승리와 당을 위해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덕홍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및 당직을 맡고 있는 경선 후보자는 불필요한 오후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본인 선거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민주당, 대·중기 플라스틱 ‘상생협약’ 추진

납품대금 선제적 조정 등 담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9일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플라스틱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은 중동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이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의 비용으로 번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유 공급 불안으로 화학 기초소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가공해 플라스틱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대기업인 나프타분해설비(NCC) 업체들은 나프타로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근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면서 합성수지 공급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재료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의 선제적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노력, 선급금 지급·유동성 지원 방안 모색, 원재료 수급 문제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할 납기 연장 협조, 납품지연에 따른 페널티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본 광고는 AI를 활용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데, 갑자기 정전이 오면?”
 “이 많은 차들을 움직일 에너지는 영원할까?”
 “우리 아이들이 쓸 에너지는 남아있을까?”

세상이 던지는 질문은
 앞으로 더 복잡해지겠지만
 늘 그래왔듯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보다
 모두의 평범한 삶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오티에르만의 향기·음악 흐르는 ‘오감만족’ 라이프스타일

부동산 현장 르포

서초 ‘오티에르 반포’ 가보니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15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이프에 들어서면 향기와 음악이 먼저 감지된다. 오티에르 향과 오티에르 음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첫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선보이며 레이몬드 메츠의 시그니처 향기, 정재일 음악감독의 시그니처 음악, 유명 셰프 등과 공동개발한 시그니처 커피와 차까지 입주민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경험을 구상했다.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마감재 등 최고급 건축물에 집중했다면 오티에르는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였다.

◆ 하이엔드 첫 선... 오티에르 반포

오티에르(HAUTERRE)는 포스코이앤씨가 내놓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다. 프랑스어로 ‘높은, 귀한, 고급’을 의미하는 ‘HAUTE’와 ‘땅, 영역, 대지’를 뜻하는 ‘TERRE’의 합성어다. ‘귀중한 사람들이 사는 특별한 곳’이라는 의미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고객에게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선 오티에르 반포 전경. /포스코이앤씨



한국식 정원으로 꾸민 조경. /안상미 기자

포스코이앤씨 첫 하이엔드 브랜드 6월 준공... 공사 대부분 마무리 세대내부 유럽산 원목 마루 깔고 독일 프로파인 창호로 소음 차단 8계절 감상 자연주의 한국식 정원

나만의 온전한 순간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여유로운 공간 속에서 누구나 주목할 만한 디자인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티에르의 핵심 가치이자 브랜드의 정체성”이라고 설명했다.

오티에르 반포는 신반포21차를 재건축한 단지다. 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다. 세대수는 많지 않지만 조

합원들의 수요를 반영해 전용면적 44㎡부터 170㎡ 펜트하우스까지 타입이 다양하다.

오티에르 반포를 시작으로 신반포 18차를 재건축한 ‘오티에르 신반포’가 연이어 올해 준공 예정이며, ‘오티에르 포레’와 ‘오티에르 방배’는 지난해 분양을 마쳤다. 당장 오는 10월 시공사 선정을 앞둔 신반포 19·25차 재건축에도 오티에르로 입찰에 나선 상황이다. 수주에 성공한다면 반포권에서 오티에르 삼각 벨트가 구축된다.

◆ 펜트하우스를 일상으로...

지난 8일 공개된 전용 150㎡ 펜트하우스는 복층형으로 층고가 5m가 넘는

다. 남향에 4베이 구조로 낮 시간에 채광이 충분히 되도록 평형을 구성했다.

세대 내부에는 유럽산 원목 마루를 깔고, 주방에는 유럽산 세라믹 상판과 독일 한스그로헤 수전을 사용했다. 창호역시 독일산 프로파인으로 맞닿은 8차선 도로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 쓰레기는 세대 내부에서 바로 버릴 수 있는 이송 시스템이 적용됐다. 펜트하우스만의 특권이 아니다. 일반 세대 모두 적용된 사항이다.

외벽에는 포스코 프리미엄 강간재를 특화 마감재로 사용했으며, 커튼월에는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결합해 친환경 기술을 구현했다.

단지 내 조경은 자연주의 한국식 정원을 조성했다. 폭이 좁고 길게 이어진 단지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살려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듯 유선형으로 구성했고, 강원도 자작나무부터 제주 수목까지 다양한 식종을 식재했다. 진달래·철쭉 같은 자생종과 수국 근각 등으로 4계절을 넘어 사이사이 변화까지 8계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 250세대에 프라이빗 시네마를?

오티에르 반포의 커뮤니티 시설은 약 3800㎡에 달한다. 세대당 4.8평으로 대규모 단지에서도 드문 규모다. 대형 피트니스센터부터 골프연습장과 프라이빗 시네마, 찜질방을 옮겨놓은 듯한 테라피 공간, 실내형 스마트 그린팜 등과 함께 카페와 1인 독서실, 워크라운지가 빠짐없이 들어섰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학습부터 취미까지 모든 연령대를 위한 시설들을 갖춰 라이프스타일의 확장을 추구했다”며 “그간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보강해야 할 점들을 적용한 것은 물론 입주민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수익 화할 수 있는 락커나 워크라운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smahn1@metroseoul.co.kr



진옥동 회장 “신한, AI중심 기업 탈바꿈”

주주들에 서신 발송 “임직원 고객응대 집중할 환경 조성 대기시간 단축·업무 정확도 제고”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업무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자동화하고, 임직원들은 각자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9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주주들에게 서신을 발송하며 신한을 AI 네이티브 컴퍼니(Native Company)로 전환시켜 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회장은 생성형 AI 경진대회 개최와 AX(인공지능 전환) 전담 조직 신설 등 지난해 성과를 언급하며 “궁극적으로 신한을 AI 중심 기업으로 탈바꿈시

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한은행의 AI 브랜드, 신한투자증권의 AI 기반 증권신고서 작성 등을 사례로 들며 “AI 도입을 통해 임직원들이 고객 응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 시간 단축과 업무 정확도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진 회장은 “미·중 경쟁 구도와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전략적 공급 파트너로 재평가받고 있다”며 “지금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기술 격차 해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 흐름을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의 기회로 삼아 생산적 금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업대출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이 금융회사들의 새로운 자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진 회장은 서신 말미에서 1982년 신한은행 창립 당시 ‘7B 경영이념’을 언급했다.

그는 “나라를 위한 은행”은 생산적 금융으로, ‘믿음직한 은행’은 철저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로, ‘세계적인 은행’은 글로벌 무대에서 끊임없는 도전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며 “창업자 및 선배 세대의 도전정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며 ‘일류(一流) 신한’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티메프 피해자 할부결제대금 돌려준다

금감원, 카드사 결제대금 환급 결정 소비자 할부 청약철회권 행사 인정

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상품을 카드 할부로 결제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9일 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고, 카드사에 결제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할부거래법이 이번 환급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청약철회권이 인정될 경우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는 이미 납부한 할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잔여 할부금 채무는 소멸된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100%), 판매사(90%), PG사(30%)의 연대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판매사 106개사 중 62개사, PG사 14곳 중 10곳이 조정 결정을 불수용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티몬·위메프로 하여금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대금을 즉시 환급하도록 의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진행했음에도, 영세 판매사와 PG사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데다 위메프 파산까지 겹치면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아크로드 서초’ 만점 청약통장 등장

최저가점 69점... 경쟁률 1099대1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보장된 ‘아크로드 서초’ 청약에 만점 통장이 줄줄이 등장했다. 청약 경쟁률이 네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일부 타입은 당첨 평균가점이 만점인 84였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크로드 서초의 당첨자 최저 가점은 69점, 최고 가점은 84점이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이 넘을 경우 32점,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는 2명(3인 가구) 15점 ▲3인 20점 ▲4인 25점 ▲5인 30점 ▲6인(7인 가구) 이상 35점 등으로 점수가 더해진다. 4인 가족이라면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아도 가점이 최대 69점이다.

특히 아크로드 서초의 경우 전용 59㎡C는 당첨 가점 평균이 만점인 84이었다. 모집 2세대 모두 만점통장 가구만 가능했다. 59A 타입은 최고점이 5인 가족 만점인 79점이며, 평균은 74.45다. 59타입의 평균 가점은 69로 가장 낮았지만 4인 가족 만점 통장은 가지고 있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었다.

교통과 학군, 생활인프라, 자연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청약가점이 치솟은 것으로 보인다.

아크로드 서초는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서초신동아 1,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지상 39층, 아파트 16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앞서 아크로드 서초는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평균 1099대 1로 서울 민간분양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전용면적 59㎡A타입은 26가구 모집에 2만9535건이 접수돼 1135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평균 3.3㎡당 7800만원선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가 18억 6490만원이다. /안상미 기자

카카오뱅크, 몽골 MCS그룹과 업무협약

‘M Bank’ 전략적 지분투자 등 협력

카카오뱅크가 몽골 최대 기업인 MCS 그룹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몽골 금융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M Bank’ 전략적 지분투자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및 대인신용평가모형 공동 개발 ▲상품·서비스 및 UX·UI 자문 ▲중앙아시아 공동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M Bank’는 MCS그룹이 2022년 설립한 금융 자회사이자 몽골 유일의 디지털 은행이다.

카카오뱅크는 독자 개발한 신용평가 모형인 ‘카카오뱅크스코어’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 및 신편입러(Thin-filer) 고객에게 15조 원 이상의 대출을 공급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해당 기술력과 건전성 관리 경험을 몽골 현지에 공유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드라마 속 혁신가전 공간 현실로 아태 B2B·빌트인 시장 동시 공략

LG이노페스트 아시아·태평양

25인치 워시타워 신제품 공개
히트펌프 건조기 라인업 소개
아태 지역 맞춤형 냉장고 선보

LG전자가 워시타워·워시콤보 등 혁신 가전과 UP가전·구독과 같은 서비스로 완성되는 'K-라이프스타일'을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 최대 시장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오는 10일까지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20여 개국 주요 유통 거래선과 언론을 초청해 신제품과 사업 전략을 소개하는 'LG 이노페스트 2026 아시아태평양'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진행된 중동·아프리카와 중남미에 이어 올해 이노페스트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가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아태지역은 약 44억 명(중동 및 중앙 아시아 제외) 인구를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최대 시장이다. LG전자는 이러한 핵심 시장의 중요성을 반영해 올해 열린 이노페스트 중 최대 규모 전시관을 마련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드라마 속 공간을 모티브로 전시장을 꾸며



관람객들이 'LG 이노페스트 2026 아시아태평양(LG InnoFest 2026 APAC)' 현장에서 신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참석자들이 K-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제품 중에서는 한국의 프리미엄 주거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 가전으로 '워시타워' 신제품이 이목을 끌었다. 워시타워는 세탁기와 건조기의 일체형 타워 설계로 공간의 효율성은 물론 심미성까지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24·27인치 모델과 함께 25인치 워시타워 신제품이 새롭게 공개됐다. 이처럼 크기 라인업을 세분화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세탁·건조 용량을 늘리고 LCD를 적용하는 등 편의성도 업그레이드해 글로벌 누적 판매 320만 대를 돌파한 흥행 돌풍을 아태지역에서

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LG전자는 시장 내 ESG 트렌드 확산에 발맞춰 업계 최고 에너지 효율을 갖춘 히트펌프 건조기 라인업도 새롭게 선보였다.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워시콤보'는 물론, 세분화된 용량과 기능을 탑재한 건조기 모델들로 고효율 가전 시장에서 브랜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다진다.

아태지역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맞춤형 냉장고 라인업도 대거 공개했다. ▲무더운 동남아 기후를 반영해 4가지 종류의 얼음을 제공하는 얼음정수기 냉장고 ▲용도에 맞춰 냉장·냉동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컨버터블 냉장고 ▲벽과의 틈새를 최소화해 깔끔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공간을 동시에 구현한 핏앤맥스 냉장고 등이 대표적이다.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태지역 B2B 및 빌트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1시간 내 세척과 건조를 끝내는 식기세척기 ▲카메라로 재료를 식별해 레시피를 추천하는 오븐 ▲아일랜드 조리대와 일체형으로 설치돼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강화한 다운드래프트 후드 ▲상업용 세탁가전 솔루션 등도 전시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가전업계 실적 희비... 삼성 '주춤' LG '선방'

관세부담·수요둔화... 수익성 적신호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전 사업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양사 모두 관세 부담과 수요 둔화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은 채 수익성 방어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1분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가전(VD·DA) 사업부는 적자 또는 소규모 흑자 수준에 머물며 실적 회복 속도가 더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LG전자는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매출 23조 7330억원, 영업이익 1조 67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32.9% 증가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외연 확장을 이룬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TV·가전을 담당하는 VD사업부와 생활가전(DA)사업부는 전 분기 약 6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속에서 수익성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DA·VD 부문이 AI 가전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며 얼마나 빠르게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지가 전사 수익 기반을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LG전자는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S

사업본부가 구독 가전 확대와 프리미엄 제품 중심 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HS 사업본부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7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안팎 성장이 예상된다. 생산지 최적화와 판가 조정으로 관세 부담에 대응하는 한편, 가전 수요 둔화 속에서도 AI 가전 라인업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LG전자의 TV사업을 담당하는 MS 사업본부 역시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MS사업본부는 TV수요 정체와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연간 7509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인력 효율화에 따른 고정비 감축과 광고·콘텐츠 사업 성장 등이 맞물리며 수익성 개선의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의 희비가 엇갈린 성적표에도 대외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공통으로 지적된다. 가전업계는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면서 올해 사업 환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전 시장은 수요 둔화와 비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이라며 "결국 비용 통제와 제품 믹스 개선을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D현대중, 세계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

중형 가스운반선 2척 명명식

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가스운반선 건조에 성공했다.

HD현대중공업은 9일 울산조선소에서 암모니아 추진이 가능한 이중연료(D/F) 엔진을 탑재한 중형 가스운반선 2척의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안트베르펜(ANTWERPEN)'과 '아를롱(ARLON)'으로 명명됐다.

이들 선박은 길이 190m, 너비 30.4m, 높이 18.8m 규모다. HD현대중공업이 자체 기술로 설계·제작한 화물창 3기를 탑재해 암모니아와 LPG 등 액화가스 화물을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

또 추진엔진 회전축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축발전기(Shaft Generator)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적용해 친환경성을 강화했다. 암모니아 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초의 중형 가스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HD현대

출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장치와 배출 회수 시스템 등 방재 기술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해당 선박에는 스위스 엔진업체 윈지디(WinGD)가 세계 최초로 개발·시험한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이 적용됐다. 해당 엔진은 지난 1월 HD현대중공업 엔진기술센터에서 형식승인시험(TAT)과 공장인수시험(FAT)을 거쳐 상업 운항 가능성을 입증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삼성, 사람 중심 제품설계... "일상경험 개선"

S26·버즈4 시리즈 개발 과정 소개
기술·데이터 기반 사용자 경험 설계

"갤럭시는 기술도, 감성을 담은 디자인도 언제나 사람 중심이다. 첨단 기술이 담긴 제품이지만 편안하고 부드러운 감성을 더해 소비자의 일상에 함께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이일환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자인 팀장 부사장은 9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열린 갤럭시S26시리즈와 갤럭시 버즈4시리즈 디자인 콘셉트 및 개발 과정을 소개하는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보다 자연스럽고 정교하게 설계한 '사람 중심 디자인'을 강조한 것이다.

이지영 MX사업부 디자인팀 상무는 갤럭시S6 디자인을 두고 "갤럭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첫인상에서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느껴지고, 손에 쥐고 사용할 때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기술의 가치를 소비자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갤럭시S26 울트라 디자인은 외형 통일성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S25 울트라까지는 S25와 S25플러스와는 다른 모서리 곡률이었으나 S26 울트라에서는 S26과 S26 플러스와 같은 곡률을 적용했다. 이로써 S26시리즈는 3개 모델의 외곽 실루엣을 갖춘



이일환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자인팀장 부사장이 갤럭시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으로서 '모든한 조형에 감성을 담은 디자인'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초의 S시리즈로, 강력해진 S시리즈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확립했다.

이 상무는 "갤럭시다운 인상과 편안한 그림감, 전체 조형의 균형을 모두 고려해 최적의 모서리 곡률인 7R(Radius)을 도출했다"며 "이는 모서리뿐 아니라 S펜 팀도 비례적으로 곡률을 맞춰 7R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S26시리즈는 더 얇고 가벼운 제품으로 완성하면서도 카메라가 주는 시각적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제품은 얇아지고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해서 생김 바디와 카메라 간의 시각적 단차를 줄이기 위해 카메라 주변을 살짝 돌출시킨 영역인 카메라 섬(Island)을 적용했다.

갤럭시S26 울트라 소재를 티타늄에서 알루미늄으로 바꾼 질문에 대해서 이 상무는 "원매스 구현을 위한 일체감

과 프리미엄 가치,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갤럭시 버즈4에 대한 착용감 중심 설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송준용 MX사업부 디자인팀 그룹장은 "웨어러블에서 착용감은 편안함 뿐만 아니라 성능의 문제"라며 "특히 이번 버즈4는 고음질 사운드 경험이 중요한 제품인 만큼 착용감이 가장 큰 우선순위를 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부터 미국 미시간 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확보한 전 세계 1억 개 이상의 귀형상 데이터와 1만 회 이상의 착용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인체공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버즈4의 착용감을 정교하게 설계했다.

블레이드 디자인 도입 배경을 묻는 말에 송 그룹장은 "사용성과 착용감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더 편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시리즈의 정품 케이스 최초로 마그넷이 적용된 다양한 케이스와 ▲마그넷 무선 충전기 ▲마그넷 스탠드 카드 월렛 ▲듀얼 마그넷 링홀더 ▲마그넷 미러 그립 스탠드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또 버즈4시리즈는 ▲전통 문양 시리즈 ▲통조림 시리즈 ▲레트로 게임기 시리즈 등 다양한 '갤럭시 버즈4시리즈' 케이스를 출시하며, 이와 함께 ▲헬릭스 러기드 ▲초코송이 등 이색 콜라보 케이스도 선보였다. /차현정 기자

한화에어로-인드라그룹, 장갑차 사업 MOU

중남미 지상방산 시장 공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인 방산 기업 인드라 그룹과 손잡고 중남미 지상방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칠레 장갑차 사업을 시작으로 플랫폼과 임무 체계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앞세워 중남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국제항공우주 박람회 'FIDAE 2026'에서 인드라 그룹

과 칠레 장갑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칠레 장갑차 현대화 사업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 등 지상 플랫폼을 공급하고 인드라 그룹은 통신과 상황인식, 지휘통제 등 임무 체계 장비를 맡는다. 인드라 그룹은 중남미 지역 사업 조율과 현지 네트워킹 지원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쌍두마차’, 현장 소통으로 中企·소상공인 챙긴다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노 차관, 모태펀드 투자업계 간담회
“글로벌 유니콘 도약 기반 강화”

이 차관, 플라스틱 대·중기 협약 참석
제과협회 만나 중동궤 애로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쌍두마차’인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계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 여파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정책 대상자들의 애로 청취, 정책 발굴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병권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과 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 협약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고 상생협약 체결시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식품 분야 수요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모태펀드 장기·스케일업 투자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삼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분부가 포함된 9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한국플라스틱공업협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그리고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관련 대·중견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 문제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및 지체 상금 면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생협약 참여 기업에 대해 동반성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열린 ‘플라스틱 중소기업·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장지수 반영, 포상 우대, 수위탁 정기실태조사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약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 협약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 점검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이날 제과점업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와 별도 간담회를 갖

고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관련 업종 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했다.

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태펀드(스케일업 및 장기) 운용사, 투자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모태펀드 장기·스케일업 투자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운용했던 펀드들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을 위해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에서 인내자본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리카캠바이오사이언스, 보스반도체, 콘텐츠테크놀로지스(VIC), KB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스, 스케일업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 차관은 “유니콘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라면서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장기·스케일업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행사 41회, 이 차관은 행사 39회 출신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6곳 지원사업 불법 개입 민관 협력으로 막는다

중소벤처, 소상공인 피해 방지 노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6곳이 민간 플랫폼과 함께 지원사업 불법 브로커를 막기 위해 힘을 모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은 9일 오후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민간 플랫폼인 숭고, 크몽과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장광고 근절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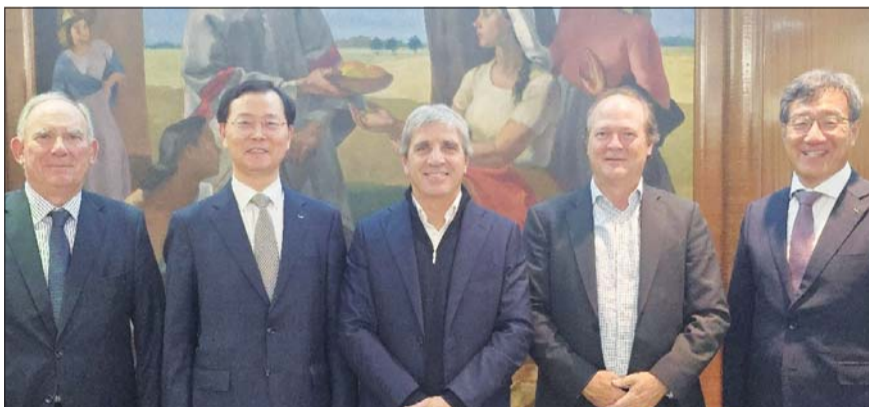
참여 공공기관들은 불법 브로커의 최신 동향과 행동 패턴에 따른 주의 키워드 등 핵심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비상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과장광고, 공공기관 명칭 무단 사용 및 자격요건 관련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김승호 기자

포스코홀딩스, 아르헨 리튬 추가 확보... 생산기반 확대 탄력

캐나다 LIS 염호 광권 인수 마무리
아르헨 리튬자원 1500만톤 확보
연산 5만톤 생산기반 확대 기대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추가 인수를 마무리하며 글로벌 리튬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 승인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자원 확보부터 생산, 사업성 측면까지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포스코 아르헨티나 법인을 통해 캐나다 리튬사 우스(LIS)가 보유한 움브레 무에르토 노스(Hombre Muerto North) 염호 광권 100% 인수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투



루이스 루세로(Luis Lucero) 아르헨티나 연방 경제부 광업차관(왼쪽부터),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아르헨티나 연방 경제부 장관, 다니엘 곤살레스(Daniel Gonzalez) 아르헨티나 연방 경제부 선임차관(RIGI 위원장), 박현 포스코 아르헨티나 법인장이 현지시간 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나 리튬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홀딩스

자 계획을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인수 금액은 약 6500만달러(약 950억원)다. 움브레 무에르토 노스 염호는 약 158

만톤 규모의 리튬 매장량이 추정된다. 리튬 함량이 높고 불순물이 적어 고품위 자원으로 꼽힌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인수로 기존 보유 광권을 포함해 아르헨티나에서 매장량 기준 총 1500만톤 규모의 염수리튬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채굴 가능성과 수율을 감안하면 최소 300만톤 이상의 리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기차 약 70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포스코홀딩스는 광권 확장을 통해 개발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1단계 공장과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2단계 공장에 추가 자원 확보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중장기 생산능력 확대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한진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레퍼리 ‘K-뷰티 셀렉트 스토어’의 물류를 수송했다.

한진 도쿄 K-뷰티 행사운송 글로벌 특화물류 존재감 한국~도쿄 화장품·행사물자 배송

한진이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 일대에서 열리는 ‘K-뷰티 셀렉트 스토어(Select Store)’ 행사 자재 및 물품 운송을 수행하며 특화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9일 한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작해 오는 13일까지 예정된 ‘K-뷰티 셀렉트 스토어’는 K-뷰티와 K-컬처를 선도하는 뷰티테일(Beauty+Retail) 기업 ‘레퍼리’가 주관하는 첫 글로벌 프로젝트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셀렉트 스토어다. 오프라인 체험과 온라인 커머스가 결합된 복합 행사로, 한진은 행사 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집기류와 비품뿐만 아니라 온도와 충격에 민감해 안전한 이동이 필수인 화장품을 한국에서 도쿄 현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했다.

한진은 성공적인 행사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레퍼리 측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김승호 기자

LS에코에너지·LS에코첨단소재, 구동모터 공급망 구축 맞손

구동모터 핵심부품 협력 본격화
희토류 금속·권선 공급망 연계
전기차·로봇·방산 수요 확대 대응

LS에코에너지와 LS에코첨단소재가 구동모터 핵심부품 분야에서 협력에 나서며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사는 9일 ‘구동모터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봇과 방산, 전

기차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겨냥해 구동모터 핵심부품의 공동 개발과 공급망 구축을 본격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동모터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장치로 꼽힌다. 영구자석과 권선(구리선), 코어 등 3대 핵심 부품의 성능이 모터의 효율과 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구동모터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기차에는 차량

1대당 1~2개의 구동모터가 탑재되며 도심항공교통(UAM)과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전기차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구동모터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모터 탑재량이 늘어나면서 핵심 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를 낮춘 비중국 공급망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사는 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과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LS에코에너지는 최근 희토류 영구자석용 금속 사업에 착수했고 LS에코첨단소재는 현대자동차와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권선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희토류 금속과 권선을 연계해 구동모터 핵심부품 공급망 구축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LS에코첨단소재의 북미 현지화 전략과도 맞물리면서 글로벌 완성차와 로봇 업체에 대한 대응력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관희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박윤영, '토탈영업센터' 해체... 통신 본업 경쟁력 회복 박차

(KT 대표)

KT군포타워 토탈영업센터 방문
기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의 산물
소속 인력, 현장 실무부서로 재배치
보안 거버넌스 체계도 대대적 손질

박윤영 KT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현장 경영 행보를 가속화하며 전임 대표이사 체제의 상징적 유산인 '토탈영업센터' 해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훼손된 통신 본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네트워크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정통 'KT맨'으로서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9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8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KT군포타워의 토탈영업센터를 방문해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조직 재배치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대표는 현장에서 "현장에서 KT를 대표해 땀 흘리고 계신 모든 임직원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책임감과 헌신으로 오늘의 KT가 있다"고



박윤영 KT 대표(가운데 왼쪽)가 지난 8일 서부광역본부 토탈영업센터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KT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취임 직후 과천 네트워크·보안 관제센터와 호남권 주요 거점을 방문한 것의 연장선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흐트러진 현장 조직을 추스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토탈영업센터는 2024년 10월 김영섭 전 대표 체제에서 단행된 대규모 구조조

정의 산물이다. 당시 자회사 전출이나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은 기술 인력 등 2200여 명이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직은 그동안 '전문성 없는 영업 강요'라는 내부 비판을 받아왔다. 숙련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갑작스럽게 유무선 상품 영업에 투입되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통신 인프라 관리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진단이 잇따랐다.

실제로 박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 등 보안 사고의 근본 원인이 무리한 현업 인력 축소와 그에 따른 네트워크 관리 체계의 약화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KT는 토탈영업센터를 폐지하고 소속 인력들을 이달 16일자로 현장 실무부서에 전면 재배치하기로 했다. 전체 인원의 약 60~70%는 커스터머(B2C) 조직으로 배치돼 미사용 회선 정비와 네트워크 자산 관리 등 기초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나머지는 네트워크 운영 및 법 인고객(B2B) 대응 부서로 분산돼 운영 안정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미영 KT새노조 지부장은 "토탈영업TF는 재작년 구조조정 당시 대상자들이 퇴직하지 않으면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조직"이라며 "토탈영업TF가 만들어지던 당시 다른 부서는 인력 공백이 발생했음에도 '사람이 없다'며 충원을 하지 않았고, 반면 토탈영업TF는 사업 합리화 대상이라는 이유로 인사 이동조차 제한됐다. 그 결과 조직 운영 전반에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 조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과 함께 보안 거버넌스 체계도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박 대표는 분산돼 있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하고 금융결제원 출신의 보안 전문가인 이상운 전무를 최고정보보호 책임자(CISO)로 영입했다. 인공지능 전환(AI)을 진두지휘할 'AX사업부문'을 신설하고 삼정KPMG 출신의 박상원 전무를 수장으로 앉힌 것 또한 통신사 본연의 업무에 기술 혁신을 접목하겠다는 박 대표의 구상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KT 새노조는 이번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원거리 발령이나 직무 불일치 등 직원들의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토탈영업센터 직원 대상 전환배치 관련 희망부서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들의 전문성과 직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대형 게임사 독주... '기울어진 운동장' 심화

넥슨·크래프트·넷마블 등 대형사
핵심 IP 기반으로 수익구조 안정화
중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어려워
중소, 재무 건정성·투자유치 난항

국내 게임 산업이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중견·중소 게임사의 사업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실적 격차를 넘어 투자·개발 구조 전반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 크래프트, 넷마블 등 주요 대형 게임사들은 핵심 IP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멀티플랫폼 전략과 라이브 서비스 운영 역량을 강화하며 매출 변동성을 낮춘 점이 특징이다. 기존 흥행 IP를 활용한 후속작과 확장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 기반을 유지하는 전략도 주효했다.

이들 3사의 연간 매출은 합산 기준 약 10조원 수준으로, 국내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글로벌 시장 공략과 장기 서비스 중심의 운영 전략이 맞물리면서 실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중견 게임사들은 여전히 신작성과 과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주력 IP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개발비 상승과 마케팅 비용 확대가 맞물리며 수익성 개선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 게임사의 부담은 더 크다. 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재무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개발사는 외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프로젝트

유지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도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대형 게임사 중심의 퍼블리싱 구조가 강화되는 점도 주목된다. 자금력과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한 대형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소 개발사가 독자적으로 IP를 성장시키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단기적으로는 대형사의 퍼블리싱 능력을 통한 안정적인 출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개발 인력과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형사로 집중되면서 중소 개발사의 신규 시도와 장르 다양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국내 게임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CNS와 SAP가 공동 주최한 'Business AI for ERP Summit'에서 LG CNS ERP이노베이션사업담당 진경선 상무(오른쪽 두 번째)와 참석자들이 패널토의를 진행하는 모습. /LG CNS

LG CNS-SAP, 차세대 기업자원관리 AX 공개

'비즈니스 AI 포 ERP 서밋' 공동 개최

LG CNS는 SAP와 함께 기업자원관리(ERP) 시장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서울 강남에서 '비즈니스 AI 포 ERP 서밋(Business AI for ERP Summit)'을 공동 개최하고, SAP 비즈니스 AI 기반 ERP 혁신 전략을 공개했다.

행사는 제조·물류·유통·통신 등 다양한 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SAP 비즈니스 AI는 기업 핵심 시스템에 AI를 적용해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LG CNS는 SAP와 협력을 통해 관련 역량을 확보하고, ERP 컨설팅부터 구축·운영·고도화까지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엔씨소프트

MSCI ESG 평가서

최고등급 'AAA' 획득

4년간 AA 등급... 올해 한 단계 상승

엔씨소프트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 MSCI의 2026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엔씨는 2022년 AA 등급 획득 이후 4년 연속 상위 등급을 유지해왔으며, 올해 AAA로 한 단계 상승했다. 인적자원 정보 공개, 온실가스 배출 효율 관리, 최고경영진 차원의 윤리 이슈 감독, 반부패 정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빛나 기자

NHN클라우드, 日 현지 AX시장 입지 강화

'재팬 IT 워크 스프링 2026' 참가
이노그리드와 공동부스 운영

NHN클라우드는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재팬 IT 워크 스프링 2026'에 참가해 AI 트랜스포메이션 구현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경쟁력을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2040년까지 약 1100만 명의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면서 제조 건설 서비스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AI 기반 생산성 혁신 수요가 빠르

게 확대되는 상황이다.

NHN클라우드에는 2019년부터 도쿄 리전을 직접 운영하며 현지 데이터 규제와 보안 요구를 충족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공공 금융 분야에서 검증된 풀스택 클라우드 역량과 GPU 기반 AI 인프라 서비스를 중심으로 일본 시장 공략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이노그리드와 공동 부스를 운영해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와 GPU 자원 운영 기술 등 엔터프라이즈 AI 인프라 운영 역량을 함께 공개했다. 전시 첫날부터 문의가 이어지며 GPU 인프라 수요를 재확인했다.

/최빛나 기자

원더풀, 한국지사 설립... 정응섭 지사장 선임

엔터프라이즈급 AI 에이전트 제공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플랫폼 기업 원더풀이 한국 지사인 원더풀코리아를 설립하고 아시아-태평양 시장 공략에 나선다.

원더풀은 한국 지사 출범과 함께 삼성물산, SAP, 슬랙, 워크데이코리아 등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엔터프라이즈 IT 전문가 정응섭 지사장을(사진)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원더풀의 이번 진출은 엔터프라이즈급 AI 수요가 높은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원더풀은 AI 플랫폼과 현지 배포 역량을 결합해 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엔터프라이즈급 AI 에이전트를 제공한다. 인사이드 파트너스, 인텍스 벤처스, IV



P, 베세머 벤처파트너스, 바인벤처스 등으로부터 총 2억86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통신·금융·리테일·헬스케어·여행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왔다.

회사는 한국 시장을 엔터프라이즈 AI 도입이 빠르게 확대될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있다. 다만 데이터 보안 규제와 복잡한 기존 시스템 환경으로 인해 실제 도입이 쉽지 않은 점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원더풀은 에이전트 AI 플랫폼과 현지 전문 인력을 결합해 복잡한 시스템 환경에서도 AI를 신속하게 운영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지금이야 골든타임”... 황성업, 자본시장 구조개편 드라이브

금투협회장 취임 100일 간담회 이달 말 ‘K자본시장 포럼’ 출범 퇴직연금 유연한 운용 필요성 강조 자본시장 개혁, 정부 등 협력 필요

황성업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K자본시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본시장 구조개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단기 대응을 넘어 10년 단위 청사진을 통해 시장을 ‘국민 자산 플랫폼’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황 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자본시장이 레벨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단행한 조직 개편과 관련해 “회원사 지원이라는 단기 과제와, 장기 청사진이라는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결과물이 바로 ‘K자본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피 6000은 조만간 도달할 수 있는 목표지만,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전체를 브랜드화하고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황성업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K자본시장 포럼’을 출범시키고, 10개 내외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정조준... “수익률 낮은 구조 문제”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다뤄진 이슈는 퇴직연금이었다. 황 회장은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원인으로 ‘보수적 운용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가 원리금보장 상품에 묶여 있다”며 “이 구조에서는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 규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황 회장은 “투자자가 50대50으로 자산을 배분했다더라도 시장 상승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으면 다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게 과연 합리적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투자 기회를 제약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보다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계속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수익률 개선 요구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거버넌스 문제를 핵심 변수로 꼽았다. 그는 “퇴직연금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며 “기존 계약형과의 균형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글로벌·ETF까지... 황 회장 “자본시장 문샷 필요”

황 회장은 자본시장의 본질을 ‘생산적 금융’으로 규정하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와 BDC에 대해서는 “정부 의지가 강하고 과거보다 투자 구조도 정교해졌다”며 “시장에 안착하면 중요한 자금 공급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초기에는 운용사 중심이지만 향후 증권사까지 참여가 확대되면 자기자본을 활용한 선제 투자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흐름은 자본시장 전반의 경쟁력 확대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황 회장은 글로벌 투자 유입과 상품 다양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WGBI 편입은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MSCI 선진지수 편입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TF 시장과 관련해서는 과열 경쟁을 인정하면서도 규제 강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대광고 논란은 있지만 제도 개선은 신중해야 한다”며 “시장 경쟁과 투자자 보호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며 “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거래시간 연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황 회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준비 기간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간담회 말미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문샷’에 비유하며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자본시장도 정부·국회·언론·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금이야 바로 그 문샷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2주 휴전 기대 식었다... 코스피 다시 후퇴

대외 불안 요인 재부각... 상승세 꺾여 일시적 휴전 가능성, 전쟁 리스크 여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2주 휴전’ 기대에 치솟았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방향을 틀었다. 유가 급등과 환율 반등 등 대외 변수 불안이 지속되면서 ‘육전피’ (코스피 6000) 기대에도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1% 하락한 5778.01에 마감했다. 전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2주 휴전 합의로 6%대 강세를 보이면서 6000선 재진입 기대감을 키웠지만, 이날은 다시 하락 반전됐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 기준 5월물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97.77달러로 3.56% 오르는 등 다시 급반등을 시도 중이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전날 33.6원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도 10.0원 상승 개장했다.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자본유출입부장은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으로 인해 단기적인 금융 시장 전반의 위험선호 회복이 예상되나,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렵다”며 “시장 참가자들은 휴전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에너지 인프라의 복구·정상화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낙관론이 확대될 수 있지만, 양국의 요구 조건이 합치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쟁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반도체 업종 역시 전쟁 종식 여부가 향후 흐름을 가를 변곡점으로 여겨진다. 전날 코스피 강세는 기관 투자자가 2조7268억원, 외국인은 1조9089억원을 순매수하며 주도했다. 특히 외국인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2조원 가까이 순매수를 기록했다.

또한, 중동전쟁 발발 이후 반도체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은 저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48.46%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달 삼성전자를 18조 2437억원, SK하이닉스를 8조 1492억원 씩 순매도하면서 차익실현에 나서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들어 7일까지도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 태도를 유지했지만, 전날 대규모 순매수 자금이 유입되면서 반전됐다.

이날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1조 2410억원, 삼성전자를 5052억원씩 담았다.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를 높게 유지하면서 이달 가장 많이 사들이기도 했다. 반도체 업종은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에 달하는 만큼 중요 변수로 꼽힌다.

/신하은 기자 godhe@

NH투자증권, 투자형 우주항공 지수 출시

밸류체인 반영·스페이스X 편입 설계

NH투자증권은 9일 ‘iSelect 미국우주항공 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수는 로켓 발사체를 비롯해 위성인터넷, 우주방산, 첨단소재, 위성정보서비스 등 우주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 초기발사체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성숙 단계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해 기존 우주항공 지수와 차별화했다.

지난 6일 기준 편입 종목에는 로켓랩(Rocket Lab), AST 스페이스모바일(AST SpaceMobile), 인튜이티브 머신스(Intuitive Machines), 에코스타(EchoStar), 플래닛 랩스(Planet Labs),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스(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트랜스다임(TransDigm) 등이 포함됐다. 발사체, 위성통신, 우주탐사, 위성정보서비스, 방위산업, 항공우주 부품 등 다양한 분야 기업으로 구성됐다.

/허정윤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한국투자증권 대학생 서포터즈 ‘뱅크스 버디 2기’ 발대식에 참석한 서포터즈와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한투증권 ‘뱅크스 버디 2기’ 활동 돌입

대학생 60명, 4개월간 미션 수행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대학생 대상 브랜드 홍보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뱅크스 버디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된 총 60명으로 구성됐다. 서포터즈는 약 4개월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투자증권

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 브랜드 ‘뱅크스(BanKIS)’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SNS 콘텐츠 제작 및 바이럴 활동, 캠퍼스 투어와 현장 홍보, 대학생 대상 투자정보 전달, 투자 플랫폼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팀별 협업형 콘텐츠 제작과 캠퍼스 중심의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MZ세대와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감사의견 미달 등 54개사 퇴출 위기

코스피 12곳 코스닥 42곳

2025사업연도 결산 결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한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2곳, 코스닥 42곳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수는 총 54개사였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12개사, 코스닥시장에서 42개사였다.

전년에는 각각 14개사, 43개사로 총 57개사였다.

이 가운데 3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1개사, 코스닥시장 8개사였다.

이와 별도로 감사의견 관련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곳은 유가증권시장의 경

우 2곳, 코스닥시장은 4곳이었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8곳, 코스닥시장은 17곳이었다.

반면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된 기업은 각각 3곳, 10곳이었다.

아울러 투자주의환기 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종목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43개였고, 해제된 종목은 같은 시장에 상장된 21개사였다.

/신하은 기자



AI글래스 기술개발 중간보고회 단체사진.

/남동발전

남동발전, 현장 AX 혁신 본격화 발전설비 전용 AI 글래스 첫 공개

'AI글래스 기술개발 중간보고회'

공공기관 첫 발전 특화 기술 공개 시각·언어모델 결합 플랫폼 개발 오조작 차단·계기 판독 자동 구현 전용 보안망 안시 안전운용 추진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발전 설비에 특화된 'AI 글래스' 기술을 선보이며, 인공지능 전환(AI) 시대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시작했다.

남동발전은 지난 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경영진, AI 전문가, 기술개발 수행 기업인 (주)스위트케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스마트 발전기술 혁신을 위한 AI 글래스 기술개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 산업 분야 AI 고도화'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기획했다. 단순히 기존 스마트 글래스를 현장에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시각·언어모델(VLM)과 거대언어모델(LLM)을 결합한 '발전설비 전용

AI 운영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AI 글래스를 착용한 작업자는 설비 위치와 주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사내 시스템과 연동된 맞춤형 정보를 호출할 수 있다.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든든한 '지능형 개인비서'가 생기는 셈으로, 전 직원의 발전설비 운영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연된 주요 기술은 현장 작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능을 담고 있다. 우선 작업자가 바라보는 기기와 시스템에 등록된 작업 대상 기기를 실시간 대조하여 운전원의 오조작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현장 순찰 시 아날로그 계기판 수치를 AI가 자동으로 추출해 시스템에 입력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두 손이 자유로운 '핸즈프리(Hands-free)' 환경을 구축, 안전사고와 인적실수를 예방은 물론 업무 몰입도까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국가 중요 보안시설인 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해 모든 시스템은 전용 보안망(P-LTE) 내에서만 완벽하게 구동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고, 작업자가 보는 화면은 향후 '물리적 AI(Physical AI)' 도입을 위한 학습데이터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이번 기술개발은 정부의 국가 AI 정책을 발전 현장에서 직접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흥발전본부 6호기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시험을 거쳐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설비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글로벌 AX 혁신기술의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흥발전본부 6호기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 실증시험에 돌입해 과제를 완수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NEXT K-푸드' 참여기업 145곳 선정

농식품부, 스타트업 등 맞춤형 지원 권역별 마케팅·상품개발로 판로 확대 대·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 시너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K-푸드 수출을 견인할 '글로벌 NEXT(넥스트) K-푸드 프로젝트'에 참여할 145개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각 기업의 수출 역량에 따라 ▲밸류업 ▲브랜드업 ▲스타트업 등 3가지 부문으로 세분화했다. B2B(기업 간 거래)·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마케팅, 상품 개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들은 주도적으로 권역별 시장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설계하게 된다.

또 신규제품 개발·주요 유통업체 입점·대상 권역 수출실적 증가 등의 성과 지표를 설정한다.

우산 밸류업 부문의 경우, 식품업계를 선도하는 대·중견기업이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 투자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품력이 탄탄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을 구성해, 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권역별 마케팅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대·중견·중소기업의 상생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산을 지원한다.

한 사례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어려운 중소 양조장과 해외 유통망을 보유한 수출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 술의 글로벌 진출 활로를 개척하고 공급 기반과 현지 판매망을 동시에 확보할 예정이다. 또 미국 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식 메뉴와 국산 쌀을 활용해 전통 방식으로 빚은 우리술을 페어링하는 'K-레스토랑 위크'를 운영하는 등 우리 술의 북미 진출도 본격화한다.

브랜드업 부문은 9대 권역의 특성과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기반으로 전략품목군별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권역별 K-푸드 전략품목의 차별화된 콘셉트와 상품 특성을 부각하여 참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건강과 미용에 특히 관심이 많은 일본·중국 권역에서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폴라젠, 붓기차 등 이너뷰티 제품과 단백질 음료를 중심으로 K-푸드의 건강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기능성 식품의 수출을 확대한다.

스타트업 부문에서는 국산 원료를 독특하게 재해석하고 목표 수출 국가의 소비 트렌드를 정조준하는 아이디어 상품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목표국가 맞춤형으로 기존 제품의 성분 또는 패키지를 개선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차기 K-푸드 유망 상품을 적극 발굴한다.

예로, 혈당을 낮추는 기능성 쌀 품종을 활용한 '곡물 시럽'은 유럽의 비건 및 웰빙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인공감미료를 배제하고 혈당 부담을 낮춘 기능성 저당 시럽은 유럽 '클린 라벨'(불필요한 화학첨가물·합성첨가물 최소화)해 식물성 기반 식품 선호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KDN·KAIST, AI에너지 혁신모델 개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확보 기대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손잡고 AI(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혁신모델 개발과,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한전KDN과 KAIST는 지난 8일 카이스트 본원에서 '에너지 AI 혁신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X(인공지능 융합 기술) 기반의 에너지 실증모델 '지속가능한 전력공급(Sustainable Powering) AI'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글로벌 과급효과 평가 체계(Global Impact Framework)' 연구개발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또 이를 위해 KAIST는 ▲글로벌 수출 및 적용 목적의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개발 ▲기존 해외 캠퍼스 협력 모델(KAIST 뉴욕 모델) 고도화 ▲캠퍼스 에너지 실증 AI 거버넌스 관련 추진 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전KDN은 ▲캠퍼스 내 구축된 전

력 관련 설비·장치 분석을 통한 지능형 캠퍼스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구축 ▲KAIST의 기술 고도화 및 수출 모델 개발 지원 등을 수행한다.

특히 양 기관은 KAIST 캠퍼스 내에 '탈탄소 리빙랩(Living LAB)'을 구축해 재생에너지 수용률 100%와 핵심 연구소 무중단 전력 공급체계를 실증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탄소중립 모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번 협력은 AI와 에너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캠퍼스 기반 실증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기술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한전KDN의 현장 역량과 KAIST의 원천기술 결합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는 공공·학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신진력망 구축과 미래 에너지 신사업 개발로 정부의 AI 3대 강국 정책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화훼농가 맞춤형 합동컨설팅 추진

농진청과 경영난 해소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맞춤형 합동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훼업계가 이상기후 및 원가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데 따른 지원이다.

9일 공사에 따르면 이 컨설팅은 aT 화훼공판장 출하 농가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유통률 감소와 경영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올해 10월까지 24회 실시할 예정이다. 농가별로 재배·출하 관리, 신제품 도입 등 분야별 11명의 전문가를 1:1로 연결해 취약점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기술 지도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작년 첫 시행 이후 화훼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이끌어내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매에서 농가의 상품이 낙찰되지 않는 비율을 나타내는 유통률은 컨설팅에 참여하기 전 36.4%에서 컨설팅 후 8.7%로 대폭 감소했다. 또 참여 농가의 거래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생산성 향상이 실질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화훼농가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 중인 '역량 강화' 현장. /aT

인 소득 증대로 이어졌음을 입증했다.

객관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컨설팅 대상 농가는 2배 늘어나고, 컨설팅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려 세밀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절화(6개 농가), 난(3개 농가), 관엽(3개 농가) 등 화훼 전 분야에 걸쳐 고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편성됐다. 지난 8일 우수농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농가별 순차적인 현장 지도가 진행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외국인력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접수

고용부,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신청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 5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5774명(제조업 1만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8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며,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1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2회차부터는 외국인노동자(E-9)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과 외국인노동

자 안전리더 운영 사업장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에 가점을 부여한다.

외국인노동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누리집(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5월 22일 ~ 29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6월 1일 ~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대한홍삼(주)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릉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 서울시, 24일부터 합동점검 돌입

액상형까지 규제대상 포함
적발 땐 10만원 이하 처분
시행 전 2주간 계도·홍보
판매점·무인매장 집중 점검
금연클리닉 연계 지원 확대

앞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행 전 홍보·계도와 시행 후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져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예외는 사라진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 전 약 2주간(4월13일~4월23일)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상대로 변경 사항



Chat GPT로 생성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흡연 금지 메시지를 강조한 이미지.

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시행일부터 3주간(4월24일~5월15일)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구 합동점검반 16개반 32명을 꾸려 현장 중심 점검을 벌인다.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과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손목닥터9988을 통해 최대 1만9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오류동 럭비구장 부지에 2071가구 복합개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가결
온수역 인근 옛 경기장터 대변신

서울 오류동 럭비구장 부지에 200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1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온수역 인근에 있다. 이 구역은 럭비경기장이 있던 곳이다.

서울럭비구장은 1974년 국내 최초 민간 럭비경기장으로 개관했다. 서울에

있는 유일한 럭비경기장이었다. 이용률이 낮고 방치되다시피 했다.

이곳이 상업·주거·문화 시설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재개발된다.

지하 5층, 지상 43층, 연면적 약 42만㎡ 규모로 판매 시설, 근린 생활 시설, 공동 주택(2071가구)이 들어설 계획이다.

주택수는 기존 1790가구에서 2071가구로 281가구 늘었다. 비주거면적이 줄어든 대신 시민을 위한 공원 면적은 증가했다.

사업 부지 중앙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 공원을 중심으로 저층부에 서울형 공공 키즈 카페, 어린이 과학 체험관, 느린 학습자 교육 센터 등 공공 기

여 시설을 조성한다. 신설된 기술인재사관학교는 일지리를 창출한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사가 시작된다. 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대규모 열린 녹지와 문화·상업·주거 등 다양한 생활 기반 시설이 함께 조성돼 일상 속 여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잠재력 있는 저활용 부지를 전략적으로 재편해 지역 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해 서남권 전역에 성장 파급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유보통합 회계 안내서 배포

공·사립유치원 등 회계기준 차이 해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를 위해 ‘유보통합 특색사업 공통 회계운영 안내서’를 제작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회계 지침 차이로 유보통합 특색사업 회계운영에 동일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점과 교육청 지원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회계 운영 과정상 혼란이 발생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안내서 제작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회계 운영 비교 ▲공통 회계 운영 원칙 ▲유보통합 특색사업 세입·세출예산 편성 방법 ▲유보통합 특색사업 수입·지출

증빙 가이드 등으로 구성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기간 격차 없는 유보통합 특색사업 회계 운영을 지원하고, 회계 기준의 일관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실질적 실행기반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 가능한 회계 매뉴얼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행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방과후 강사, 학교 승용차 2부제 적용 제외

교육부 “임직원 아닌 민간인 신분”

방과후 강사는 승용차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9일 방과후 강사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홑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이달 8일부터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차에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공기관’에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가 포함되나,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와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학교의 ‘임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며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 제외되는 점과 여러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늘봄지원

실장 등 직원의 경우 각 기관이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각급 학교로 전파했다.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의 차량도 제외 대상에 포함한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과정에서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 차량이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전날 교육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차량 5부제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등은 차량 운행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교육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하남, 중동 위기 대응 300억 긴급 추경

‘비상경제 TF’ 구성해 상시 운영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남시가 정부 지원에 앞서 자체 재원을 투입하며 민생 안정에 나섰다.

하남시는 민생 현장의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4월 중 정부지원금 시 부담분과 자체 사업비 60억 원을 포함해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비상경제 TF’를 구성해 상시 운영에 돌입한다. TF는 에너지수급관리대책반, 민생안정 및 소상공인지원반, 기업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되며, 경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시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연간 1,200억 원으로 늘리고, 5월부터 8월까지 할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상향



하남시청 전경.

한다. 월 구매 한도 역시 30만 원으로 확대해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배달앱 ‘뽕겨요’와 협업해 신규 입점 점주에게 2% 수준의 저율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소비자 할인쿠폰 발행 등에 활용 가능한 ‘사장님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하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포천, 9월 국내 첫 드론 공방전 개최

국방부 등 6개 부처 협력

포천시는 국방 무인체계(드론) 발전과 관련 산업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2026 KDCC)’을 오는 9월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방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이 함께하는 다부처 협력 행사로 추진된다. 실전형 드론 공방전을 통해 국방 무인체계 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까지 함께 이끌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드론과 대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0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토론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추진됐으며,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승진과학화훈련장이 대회장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오는 6월 예선을 시작으로 9월 본선을 개최할 계획이다.

본선에서는 예선에서 선발된 우수팀(드론 4팀, 대드론 4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첨단 무인장비 전시와 시연, 세계 레이싱 드론 챔피언의 비행 시연 등 실전성과 흥미를 모두 갖춘 대회가 될 전망이다.

시는 드론 공방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연계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포천(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식품업계, 플랫폼 전용·스타셰프 협업 등 신제품 전략 고도화

CJ제일제당 마켓컬리 노하우 결합 하림 네이버 전용 즉석밥 제품 선보여 이마트24 손종원 등 셰프 협업 활발

식품업계의 협업 방식이 달라졌다. 과거 유통 채널 입점과 판촉에 머물렀던 협업이 이제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협업과, '검증된 맛'을 앞세운 스타 셰프 협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플랫폼 전용 상품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동시에, 셰프의 스토리를 더해 '경험 소비'를 자극하면서 식품기업들의 신제품 전략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CJ제일제당과 마켓컬리의 협업이다. CJ제일제당의 제조역량과 마켓컬리의 큐레이션 노하우가 결합되면서 '육즙플러스왕고자', '햇반 골든퀵살밥', '현미곤약 주먹밥' 등 기존 인기 제품을 차별화한 전용 상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하림은 네이버의 협업도 유사한 흐름이다. 기획 단계부터 공동 개발한 '당찬



맛있는 포기김치 총각김치 제품.



/CJ제일제당 더미식 골든퀵 백미밥

/하림

진미 백미밥'을 선보인 데 이어 '더미식 골든퀵 백미밥'을 네이버 전용 상품으로 단독 출시했다. 플랫폼 이용자의 구매 데이터와 선호도를 반영해 제품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플랫폼 전용 상품 전략은 제조사와 유통사 모두에게 이점이 뚜렷하다. 플랫폼은 다른 채널에서 구매할 수 없는 독점 상품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제조사는 검색어·구매 패턴·연령대별 선호도 등 방대한 데이터를 제품 기획에 반영해 타깃 맞춤형 신제품을 개

발할 수 있다. 유통 비용과 마케팅 구조도 단순해져, 최저가 경쟁 대신 품질과 차별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 흐름은 다른 식품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오투기와 대상 등도 특정 이커머스 플랫폼의 주요 고객층 성향에 맞춰 HMR과 밀키트 중심의 단독 기획전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CJ제일제당은 자사몰 'CJ더마켓' 전용 상품을 확대하고, 동원F&B 역시 온라인몰 통합 이후 전용 기획 상품을 늘리며 자사몰 충성 고

객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스타 셰프를 앞세운 협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단순한 신제품 출시를 넘어 셰프의 브랜드 가치와 스토리를 더해 '미식 경험'을 제공하려는 전략이다.

최근 농심은 '짜파게티' 신규 모델로 중식 대가 후덕죽 셰프를 발탁하고, 공동 개발한 '라초짜파게티' 레시피를 패키지에 반영했다. 맘스터치 역시 후덕죽 셰프와 협업한 '셰프 컬렉션'을 출시하며 기존 QSR 메뉴의 고급화를 시도했다.

편의점 업계도 발빠르게 스타 셰프 협

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손종원, 박은영 셰프 협업 상품의 흥행에 힘입어 최근 프렌치 요리 1세대 박효남 셰프까지 라인업에 합류시켰다. 손종원 셰프 협업 상품은 출시 40일 만에 30만 개 판매를 돌파했고, 박은영 셰프의 '여신 마라샹궈'는 출시 일주일 만에 즉석식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셰프 협업 상품 매출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은 항공사, 식품기업, 스타 셰프를 결합한 다자간 협업으로 차별화했다. 진어, 정호영 셰프, 오투기와 함께 선보인 '정호영 다카마쓰 우동'은 현지 스타일 구현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인 사례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데이터 협업과 스타 셰프 협업은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며 "앞으로 식품 기업들의 협업은 더욱 정교하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백화점, 러너 발 맞춘다... 혜택·경험 강화

롯데 '러닝 부트 캠프' 팝업 운영 신세계 '스포츠 아웃도어 워크' 돌입

백화점들이 봄철 러닝·트레킹 수요를 겨냥해 '러너 모시기'에 나섰다. 단순한 스포츠웨어 판매를 넘어 체험형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연계를 앞세워 오프라인 점포를 러닝 거점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롯데월드몰 1층에서 '러닝 부트 캠프' 팝업을 연다. 석호호수와 올림픽 공원을 잇는 이른바 '잠실 러닝 벨트' 입지를 활용해, 초심자부터 상급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했다. 지난 3월 잠실점 러닝 상품군 매출이 40% 이상 신장한 흐름을 반영했다.

행사에는 온라인, 호카, 나이키를 비롯해 마텔, 데상트, SOW, 오글리, 씨엘르, 100%, 네거티브스플릿클럽, EOU, 삭즈 등이 참여해 러닝화·의류·용품들

할인 판매한다. 특히 삭즈는 신제품 '오프로드 프로'를 오프라인 팝업 최초로 공개한다.

구매 혜택에 더해 '마킹존' 커스터마이징, 러닝화 방수 코팅 서비스, 러닝화 착용 후 실제 코스를 달려보는 '러닝 세션'도 운영한다. 롯데월드몰과 성내천 일대를 달리는 '시티런', 대모산 트레일 코스, 벚꽃 시즌과 연계한 '벚꽃 런'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점포가 단순 판매 공간을 넘어 러너들의 모임 장소로 기능하도록 했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전 점포에서 '스포츠 아웃도어 워크'를 연다.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 2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러닝·트레킹 용품을 앞세운 봄맞이 수요 공략에 나선다.

차별화 포인트는 '경험'이다. 피엘라벤 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글로벌 트레킹 행사 '피엘라벤 클래식'과 '폭스 트레킹'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에서 열리는 58km 코스의 '피엘라벤 클래식'과 강원 정선에서 진행되는 '폭스 트레킹' 참가권을 추가 확보해 주춤 증정한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퍼럴도 브랜드 트레킹 행사 참여권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는 신세계백화점 앱 응모와 매장 구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몰 '비온드신세계'에서는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오프라인 구매와 브랜드 체험, 온라인 채널을 함께 묶어 고객 접점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러닝과 트레킹이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로 자리 잡으면서, 백화점이 이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입지 기반 러닝 코스, 브랜드 체험, 커뮤니티 세션을 결합해 점포를 러너들의 거점'으로 만드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나고야성 봄 축제 참이슬 부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日 벚꽃시즌 '참이슬' 부스 운영

소주 카테일 '참이슬 탄산와리' 선보여

하이트진로는 일본 벚꽃 시즌을 맞아 진행한 현지 밀착형 프로모션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일본 대표 벚꽃 축제 '우에노 벚꽃 페스타'와 '나고야성 봄 축제'에 참이슬 브랜드 부스를 운영하며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 결과 1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일본 현지 문화 연계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본 고유의 '하나미(벚꽃을 감상하며 음식을 나누고 술을 즐기는 일본의 봄철 문화)' 문화로 주류

소비가 집중되는 벚꽃 시즌에 맞춰 기획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행사에서 벚꽃과 어울리는 한정 소주 카테일 '참이슬 탄산와리'를 선보였다. 복숭아에이슬을 베이스로 화사한 색감을 더해 봄 시즌 감성을 강조하며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다. 현장에서는 "부드럽고 마시기 편하다"는 반응을 얻으며 약 2000잔이 전량 소진됐다.

참이슬의 깨끗한 물방울 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드 부스와 두꺼비 캐릭터 포토존 등 체험형 콘텐츠도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신원선 기자

오투기 '진밀면' 300만개 판매

오투기가 여름 시즌을 맞아 선보인 신제품 '진밀면'이 출시 25일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진밀면'은 쿠팡 선린칭에서 완판을 기록하며 출시 초기부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오프라인 판매가 본격화되며 판매가 빠르게 증가했고, 25일만에 300만 개 판매를 넘어섰다.

사골과 양지를 고아낸 깊은 감칠맛의 '비빔육수스프'가 핵심 흥행 요소로 꼽혔는데, 매콤한 소스와 비벼 먹거나 차가운 육수를 부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비빔-물 2-Way 조리법'이 소비자 취향에 맞춘 조리 재미와 편의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신원선 기자

보틀병커, 2000여종 주류·상품 50% 할인

22일까지 '블랙빙커데이' 축제

애주가들이반년을 기다린 보틀병커의 주류 축제 '블랙빙커데이'가 돌아왔다.

보틀병커는 9일부터 22일까지 시그니처 주류 행사 '블랙빙커데이'를 진행한다. '블랙빙커데이'는 상·하반기 두 차례만 개최되는 연중 최대 혜택의 프로모션으로, 전국 3개점(잠실점·서울역점·상무점)에서 2000여 종 이상의 주류 및 연관 상품을 최대 50% 할인가에 판매한다.

먼저, 와인은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 폭 넓은 가격대로 준비했다. 대표 가성비 상품으로는 '러시안색 소비뇽 블랑(750ml)'과 '머드 하우스 소비뇽 블랑

(750ml)'을 함께 구성한 뉴질랜드 화이트 와인 세트가 있다.

와인 스테디셀러를 일자별로 가격적인 행사가에 만나볼 수 있으며 소장 가치가 높은 하이엔드

결들이기 좋은 페어링 푸드와 각종 주류 용품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치즈·스낵·초콜릿 등 다양한 안주류는 1+1 및 최대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엄선된 10가지 수입 브랜드의 스낵 상품은 2+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글렌캐런·리델 등 유명 글라스를 최대 30% 할인하고, 폴텍스·라기울 등 인기 브랜드 와인 용품은 20% 할인가에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컬리, 원더컬리 기획전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는 오는 13일까지 4월 원더컬리 기획전을 열고 봄·여름 상품을 최대 63% 할인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원더컬리에서는 봄나들이와 캠핑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야외에서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간편식과 간식 등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캠핑이나 야외 바비큐 음식으로는 '마더푸드 쪽갈비 2종'을 추천한다. 해동 후 그릴에 10분간 굽기만 하면 간편하게 맛볼 수 있다.

원더컬리 특가로 판매하는 '차려낸 햄 가득 송탄식 부대찌개'는 햄, 대파, 마늘

등의 재료가 먹기 좋게 손질돼 있어 풀이간 해도 근사한 한 끼가 된다. 컬리 온리 '산메촌 국산콩으로 만든 콩국수'는 국산 대두와 서리태, 검은깨 등을 배합해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다.

봄맞이 집 단장 고객은 '더 조선히otel 레이더 차렵이불'과 '이방때 60수 순면 피그먼트 타일리스 밴딩 베개커버'도 합리적인 가격에 장만할 수 있다. 'Kurlly's 시그니처 3겹 천연펄프 소프트 톱&와이드 티슈'와 'KS365 2겹 천연펄프 키친 타월' 등 생활용품도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행사 기간 컬리 앱에서는 매일 오전 11시 100% 당첨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10개 상장사 집결... HLB그룹, 바이오 생태계 확장 나서

통합 주주간담회 개최

‘리보세라닙’ 이르면 7월 승인
CAR-T 파이프라인 확대하고
펩타이드 비만치료제 현황 공유

HLB그룹이 올해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 담관암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 등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허가 결정을 앞두고 10개 상장사를 한자리에 모았다. 그룹 전체의 바이오 생태계를 강화하며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HLB그룹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6 HLB 통합 주주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양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HLB는 실패와 좌절을 신뢰의 기반으로 바뀐 기업”이라며 “주요 연구개발 성과 발표를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서 주주들과 가장 솔직한 소통을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주력 파이프라인을 묻는 질문에 진 의장은 경영 철학이 담긴 답변을 내놨다. 그는 “감독이 누구는 주연이고 누구는 조연이라고 선을 긋는 순



진양곤 HLB그룹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HLB그룹

간 그 드라마는 성공할 수 없다”며 “특정 치료제를 조연으로 치부하기보다, 그룹 내 각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HLB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한 바이오총괄 회장도 함께했다. 김태한 총괄은 HLB 그룹 합류 배경을 묻는 주주의 질문에 “40년간 삼성에서 위탁생산(CMO) 사

업과 바이오시밀러를 글로벌 톱수준으로 키웠지만, 임기 내 신약 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아쉬움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밖에서 본 HLB의 신약 파이프라인과 글로벌 에코 시스템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삼성에서의 경험을 쏟아부어 HLB를 글로벌 신약 그룹으로 성장시키는 데 이바지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개별 발표에서 HLB그룹의 핵심 과제들이 공유됐다. HLB는 간암 및 담관암 신약의 허가 일정과 심사 대응 전략, 허가 이후 사업화 계획 등을 설명했다. 특히 현재 미국 FDA에서 본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허가 여부 결론은 이르면 오는 7월로 임박해 있다.

이와 관련 진 의장은 직접 “철저한 준비를 마쳤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태한 총괄 역시 “지난 3개월간 항서제약 현장을 직접 방문해 FDA 실사 대응 체계를 바닥부터 점검했다”며 “미국 FDA의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해 HLB의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미국 FDA 간의 과거 2~3년치 교신 기록을 모두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항서제약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총 점검하며 대응 전략을 진두지휘했다고 알렸다.

이어 “미국 FDA에 세 번째 도전하면서 항서제약 입장에서 비상이 상황인 만큼, 미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리보세라닙의 약효 자체에 대해서는 추후의 의구심도 없음을 못 박았다. 김 총괄은 “임상 데이터 리뷰 과정에서 약의 효능이나 부작용 관련해서는 단 한 건의 문제도 지적된 바 없다”며 “관건은 리보세라닙은 병용 약물인 캄렐리주맙의 화학합성·공정생산·품질관리(CMC)의 완결성인데, 항체 의약품 특성상 미세한 공정 차이가 성질을 바꿀 수 있어 FDA가 까다롭게 보는 것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HLB테라퓨틱스의 신경영양성각막염 신약 임상 3상 환자 모집 80% 달성 ▲HLB이노베이션의 CAR-T 파이프라인 강화 ▲HLB 펩의 비만 치료제 개발 현황 등 그룹사 전반의 모멘텀도 소개됐다.

HLB그룹 관계자는 “HLB그룹은 개별 계열사의 성장을 넘어 연결과 확장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가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그룹의 중장기 성장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JW중외제약, GLP-1 비만신약 판권 확보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
간앤리, 임상 자료 제공 등 협력

JW중외제약은 지난 8일 중국 베이징 소재 제약기업 간앤리 파마슈티컬스와 GLP-1 수용체 작용제 신약 후보물질 ‘보팡글루타이드(개발코드: GZR18)’에 대한 국내 독점 라이선스-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대한민국 내에서 보팡글루타이드에 대한 개발, 허가, 마케팅 및 상업화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간앤리는 한국 내 임상시험계획(IND) 승인과 품목허가에 필요한 규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업무에 협력한다.

JW중외제약은 간앤리에 계약금 500만 달러와 단계별 마일스톤 7610만 달러를 지급해 전체 계약규모는 8110만 달러다. 마일스톤에는 제2형 당뇨병, 비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SA),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등 4개 적응증에 대한 개발, 허가 및 판매 성과가 포함된다. 경상기술료는 매출 구간별로



웨이천 간앤리 파마슈티컬스 회장(왼쪽부터)과 이경하 JW 회장이 ‘보팡글루타이드’ 계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JW중외제약

정한 비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보팡글루타이드는 2주 1회 피하주사(SC) 방식의 GLP-1 수용체 작용제로 개발 중인 합성 펩타이드 신약이다. 이 약물은 췌장의 GLP-1 수용체에 작용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한다. 동시에 음식물의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 유지 시간을 늘려주는 기전을 갖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다.

앞서 비만 적응증 임상 2b상 결과, 30주 동안 격주 투여만으로 평균 17.29%의 체중 감소를 보였다. 특히 기존 주 1회 투여 제품들의 임상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투여 기간 내에도 매우 우수한 체중 감소 및 혈당 강화 효과가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CT-P71’ FDA 패스트트랙 지정

‘CT-P70’ 지정 4개월 만에 성과

셀트리온은 항체-약물접합체(ADC) 기반 항암 신약 후보물질 ‘CT-P71’이 이전 치료를 받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치료를 대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2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NSCLC) 적응증을 대상으로 ‘CT-P70’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4개월 만에 일궈낸 연속 성과다. 폐암과 요로상피암 등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고위험군 암종에서 ADC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연달아 인정 받게 됐다.

FDA의 패스트트랙은 기존 치료만으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 전주기에서 개발사와 FDA 간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개발사는 ▲FDA와의 상시적 소통 채널 확보 ▲임상시험 설계 및 개발 전략에 대한 조기 협의 ▲우선심사 및 가속승인 가능성 확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수시로 제출해 심사받는 ‘롤링 리뷰’ 자격이 부여돼 전체 개발 기간을 실질적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CT-P71은 요로상피암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ADC 신약 후보물질이다. 종양세포에서 관찰되는 넥틴-4(Nectin-4)를 표적으로 하며, 앞서 진행된 비임상 단계에서 기존 치료제인 ‘파드셉’ 대비 우수한 항암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암세포의 DNA 복제 과정에서 손상을 유발하는 차별화된 공격기전을 적용해,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 모델에서도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주요 강점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중선파마’ 호치민 지사장에 신용재 상무

동화약품, 베트남 신사업 전반 리딩

동화약품은 중선파마 호치민 지사장으로 신용재 상무(사진)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신용재 지사장은 중선파마 호치민 지사 운영과 베트남 신사업 전반을 리딩하며 동남아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 지사장은 2006년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해 호텔신라에서 재무팀, 경영관리팀 등을 거쳤다. 이후 호텔신라중국법인과 호텔신라-SunArt Retail Group 합작법인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아 글로벌 사업과 운영을 담당했다.

또 SK온에서는 해외투자관리와 글

로벌 합작법인 경영을 맡았다. SK온과 중국 베이징자동차·EVE 에너지와의 합작법인에서 각각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경영책임자(CEO)로 근무하며 투자·재무·사업 전반을 총괄했다.

신 지사장은 “글로벌 투자관리와 법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사업 역량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동남아 시장에서 중선파마의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주니어보드 출범... 조직문화 혁신

대리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

광동제약은 실무진이 경영에 참여해 조직문화 혁신을 이끄는 사내 협의체 ‘주니어보드(Junior Board)’ 18기가 공식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2009년 처음 도입된 광동제약 주니어보드는 G2(대리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청년 중역회의다. 각 부서의 실무진이 조직 운영과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경영진과 직원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18기는 영업, 마케팅, 연구개발



광동제약은 실무진이 경영에 참여해 조직문화 혁신을 이끄는 사내 협의체 ‘주니어보드(Junior Board)’ 18기가 공식 출범했다.

(R&D), 기획관리 등 여러 직군에서 선 발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세경 기자



숲의 청정한 공기, 자연을 닮은 환기



'숲속 집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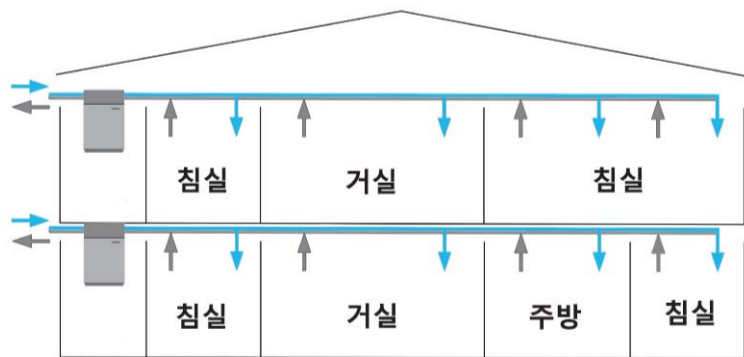
창문을 열지 않아도
미세먼지, 황사 걱정없이
숲속 공기가 집안에 들어온 듯,

환기, 이제는
더 쉽고 편안하게



좌우 도어 방식으로 간편한 필터 교체순서

[신개념] 키친 수납함 스타일로 제작된 도어형 열회수 환기청정기



→ 깨끗한 실외공기 + 산소 공급
← 오염된 실내공기 + 이산화탄소 배출

아파트, 주택, 사무실, 카페, 독서실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환기 시스템

[특장점]

●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공구 없이 도어를 간편하게 열어 필터 상태를 직접 자주 확인할 수 있음.

● 1분 셀프 필터 교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안전하게, 목 디스크 걱정 없는 편리한 교체 가능.

● 사계절 내내 에너지 절감!

냉방과 난방 효율을 높이는 최고급 전열교환소자가 내장되어 뛰어난 열교환 성능을 자랑.

● 공기 정화는 기본, 탈취까지 완벽하게!

H13 등급의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와 탈취 기능까지 갖춘 대용량 복합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로 미세먼지, 황사 걱정 없이 쾌적한 환기를 제공.

● A/S 없이도 OK!

필터 교체부터 유지관리까지 스스로 해결!

www.pursol.co.kr

푸르솔 010. 8899. 8651

현대차 정몽구 재단, 한-아세안 협력 이끌 미래인재 육성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과 'CMK 아세안스쿨' 협약식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과 손잡고 한-아세안 협력을 선도할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선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지난 8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과 서울 온드림 소사이티에서 'CMK 아세안스쿨' 협약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무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과 이진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이장근 전 주아세안대한국대대표대사 등 아세안 관련 기관 관계자, 피티 스리상남 아세안 재



정무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이진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원장이 CMK 아세안 스쿨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단 사무총장 등 국외 아세안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첫 체결 이

후 이뤄진 재협약으로, 양 기관은 오는 2029년 3월까지 한-아세안 협력을 위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CMK 아세안 스

쿨 업무에 협력한다. 양 기관은 지난 3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교육 지원을 넘어 '트랙별 맞춤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계, 국제기구, 정부 및 공공기관, 창업 및 비즈니스의 4가지 트랙별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한-아세안 협력을 이끌 미래 인재가 서로 소통하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더 넓은 기회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중견기업 '중견기업 스케일업 전략 포럼'

중견기업은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바르빌딩에서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중견기업 스케일업 전략 포럼'을 본격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첫 포럼에는 태경그룹, 알레르망, 원일특강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중견연



SK인텔릭스-대한적십자사, 빵나눔 봉사

SK인텔릭스가 대한적십자사와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기업 사회책임 실천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9일 SK인텔릭스에 따르면 '사랑의 빵나눔'은 직접 제빵과 포장 활동에 참여해 완성된 빵을 지역 취약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 및 복지기관에 전달하는 SK인텔릭스의 참여형 봉사 프로그램으로 연중 릴레이 형태로 진행된다. /SK인텔릭스



삼표시멘트, 삼척서 '1사 1하천 가꾸기'

삼표시멘트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강원도 삼척시 관내 주요 하천에서 수질 개선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 정화활동을 펼쳐 지역과 상생했다. 9일 삼표시멘트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삼척시가 주관하는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일환으로 진행했다. /삼표시멘트



대상, 급여우수리 모금액 7400만원 기부

대상이 지난 1년간 모금한 임직원 급여우수리 기부금 총 7400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등 3개 기관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김희운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모금국장(왼쪽 세 번째), 송유빈 대상 사회공헌팀장(왼쪽 두 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상



지씨셀, 고객사·파트너사 네트워크

지씨셀은 지난 8일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관 및 기업들을 초청해 '지씨셀 고객사 및 파트너사 네트워크 2026'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씨셀은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경쟁력과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갖춘 차별화된 시설을 소개하며 글로벌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에서의 사업 전략과 규제 및 투자 동향을 공유했다. /지씨셀

아모레퍼시픽, 전 사업장 에너지절감 동참 LG이노텍, 건강·안전한 일터 조성 박차

국내 사업장서 차량 5부제 권장 에너지 사용기준 조정 등 시행

아모레퍼시픽이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부터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차량 5부제를 권장 실시한다. 대상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임직원과 회사 차량으로, 자동차번호판자리 숫자에 따라 평일 중 하루는 차량 운행을 자제한다. 전기·수소차와 장애인,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반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정하 기자 mlee236@

본사를 포함한 각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기준도 조정한다. 정부 권장 기준에 따라 냉방 기준 온도는 상향하고 난방 기준 온도는 하향 조정한다. 사무공간과 공용공간의 조명 점등 시간도 축소 운영하며, 하절기에는 세면대 등 일반 온수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출장 및 이동 관리도 강화한다. 해외 출장은 필수·긴급 사안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화상회의 활용을 확대한다. 국내 출장 역시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축소 운영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 인원과 최단 기간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

'노경 공동 실천 협약식' 열어 직원 건강·안전, 기업 경쟁력 핵심

LG이노텍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경 공동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에는 문혁수 사장과 이종일 노동조합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직결된 핵심 가치로 보고 노경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LG이노텍 노동조합과 경영진은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협력 관계를 재정립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서 안전·건강 중심 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흐름도 이번 협약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양측은 '노경 공동 실천 선언문'을 통해 열린 소통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LG이노텍 본사 마곡 R&D 캠퍼스에서 열린 '노경 공동 실천 협약식' 직후, 문혁수 사장(왼쪽)과 이종일 노동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이노텍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해법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구성원의 삶과 일이 조화를 이루는 '케어(Care) 체계'를 구축하고 신체적·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LG이노텍은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노경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생활건강, 신생 K-뷰티기업 키운다

서울경제진흥원과 '맞손'

LG생활건강은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스타트업 육성 및 발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와 SBA가 추진하는 '서울창업허브 라이프스타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K뷰티·웰니스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생 기업을 대기업과 서울시가 함께 육성하고, 자금 투자와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LG생활건강은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뷰티·웰니스 기업'이라는 기업

정체성에 부합하는 스타트업을 선발해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사업화까지 함께 진행한다. 또 LG생활건강이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참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투자를 검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LG생활건강과 SBA는 오는 5월부터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뷰티 브랜드, 소재, 유통 서비스 등 뷰티·웰니스 연계 분야의 스타트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1000만원 상당의 서울창업허브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協, 제13대 집행부 구성

부회장 5명, 이사 23명 선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제13대 집행부 구성을 끝내고 기계설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계설비건설협회는 9일 서울 강남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전국 13개 시·도회장 및 제195차 이사회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2029년 1월까지 3년여간 기계설비업계를 이끌어갈 부회장 5명, 이사 23명을 선임했다. 허용주 기계설비협회장(사진)은 이날 회의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기계설비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직접발주 활성



허용주 기계설비협회장

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AI 시대에 부응한 기계설비산업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기계설비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PVC관(폴리염화비닐관) 등 기계설비 자재가격이 급등해 회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동전쟁 비상대응TF'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부음

▲김현복씨 별세, 김지혜·지영(Sayart&글로벌엔터 대표)·지은씨 부친상, 이강희·임종호(제이슨임·KPI뉴스 아트전문기자)·변정석씨 장인상, 이재호·배승우씨 조부상=실낙원김포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9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031-449-1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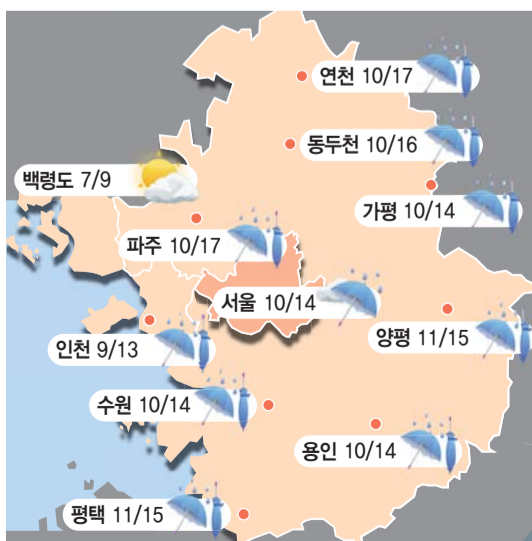
▲고삼순씨 별세, 나영식(전 금호건설 본부장)·송교(전 대우차 본부장)·앵금·선희씨 모친상, 황성철(전 광주mbc 보도국장·전 헤럴드경제 호남본부장)·모웅남(치과 원장)씨 장모상 = 9일 오전 광주 vip장례타운 501호, 발인 11일 오전 9시, 062-521-4444

오늘의 날씨

4월 10일 (금)
음력 : 2월 23일

수도권 날씨
10 ~ 1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대한민국 가요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대전역 앞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한민국 1세대 원로가수 리싸이틀"이
2026년 4월 7일(화요일)부터 매일 원로스타들의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고향 아줌마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이 좋아

매주 금요일 김상진



대머리 총각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매주 월요일
김상희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장미빛 스카프

매주 화요일 윤항기



철없는 아내
청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매주 목요일
차도균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수
차승민



매주 토요일 현 당



배호 가요제
대상

매주 수요일
이 호 / 이명주



짐이된 사랑
버팀목
보고싶어요



사회
탤런트 이경영

마술공연



여행사 및 단체관람
문의 1544-3235

결제주기 T+1 단축과 대처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을 모래 주냐”라는 발언 이후 정치권과 정부에서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이 언급되고 있다. 필자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재직 중이었던 2000년에도 거래일(T)+1 결제주기 단축이 시도됐다. 당시 우리의 결제주기가 T+2이었던 것에 반해 미국과 일본은 T+3으로, 우리보다 결제주기가 뒤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00년대 들어 미국은 당시 증권관리위원회(SEC)에서, 일본 경우엔 대장성 산하 자본기구에, 서로 유사한 시기에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하는 작업이 시도됐다. 미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하게 T+1 결제주기 도입을 2002년으로 정했다가 다시 연기를 거쳐 미국이 2004년 하반기로, 일본이 2003년 3월로, 목표를 변경했다. 이후 전개 상황을 보면, 한국에서 채권결제 T+1을 도입했지만, 주식은 종전 그대로이다. 반면 미국은 20년 이상이 걸려서 2024년 5월에 T+1 결제주기를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일본은 2019년 7월에야 비로써 T+2를 도입해 직전 결제주기를 하루 줄였다.

본래 결제주기의 단축은 주식거래 투자자의 현금 상환기일을 신속하게 하려는 데에 있기보다는 주식거래의 최종결과인 결제위험을 줄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거래일(T)로부터 결제일이 T+2이라고 가정하자. 이 기간에 갑자기 시장에 대폭락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주식매도 상대방인 매수자는 파산이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주식 매도자가 대금을 빨리 인수하고 주식양도를 늦춘다고 가정하자. 또한, 주식매수자는 주식을 빨리 받고 대금을 늦게 지급한다고 하자. 이 경우 결제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일어난 때 매도 증권 양도함과 동시에 거래대금을 받는 체계, 즉 ‘동시결제(DVP·delivery versus payment)’가 필요하다. 이런 동시결제 요건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키면서 결제비용 절감의 효율화를 도모한 방식이 차감결제제도(netting system)이다. 차감결제는 거래상대방별로 동일종목에 대한 증권매도와 매수를 상계한 순포지션을 산정해 결제를 수행함에 따

라 결제 건수와 결제대금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결제방식이다.

미국이 T+1 결제주기 도입에 20년 이상 걸리면서 가능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또한, 우리보다 선진 자본시장인 일본이 아직도 T+1 결제주기 단축을 도입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먼저, 미국은 금융중심지로 세계 각처로부터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의 자본·외환 시장으로서, 다른 나라 투자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일본이 결제주기 T+1 단축을 도입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일본과 다른 시간대에 있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거래시간 차이, 그리고 주식결제와 엔·달러 결제에 따르는 환전 시기다. 또 한국보다 더 높은 외국인 투자 비중, 그리고 국제간 결제에 따른 보관은행(custodian) 업무절차 관행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말할 수 있다.

한국 경우도 일본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이런 점들을 함께 고려하여 정부는 T+1 결제주기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결제주기 단축문제를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



기저 수첩
서예진 (정치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 정치권은 4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개헌을 이뤄내지 못했다. 39년간 개헌안을 발의한 건 총 3차례(2018·2020·2026년) 뿐이다. 2018년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20년 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현행 헌법의 개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정치적 합의가 아주 어렵다는 뜻이다.

올해 발의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을 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헌 논의는 항상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진영 간 이견이 생기면서 무산돼 왔으니, 이번에

는 개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하지는 입장을 냈다. 게다가 갑자기 장동혁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제적으로 선언하면 개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107석)을 쥐고 있고, 현재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수정할 수도 없으니 우려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럼에도 장대표는 9일 “이 대통령은 어물쩍만 얘기만 하고 대답을 회피했다”면서 “결국 연임 빌드업 개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임기 연장 시나리오”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럼 장대표의 주장대로 이 대통령이 정말 연임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행 헌법 제128조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대다수 헌법학자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이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나서, 연임 조항을 추가하는 식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조항 자체가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고, 이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대표의 주장은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이자, 야권 지지자들을 향한 공포 마케팅이다. 이쯤되면 국민의힘도 솔직해져야 한다. ‘졸속 개헌’이라서 반대하는지, 아니면 한 중진 의원의 “이재명에게 시대의 영웅 날개를 달아주는데 어찌 찬성하느냐”는 발언이 솔직한 마음인지... 국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sy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0일 (음 2월 2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패의 쓴잔을 마신다. 60년생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72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84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9년생 여러 사람과 상의하세요. 61년생 작은 소원도 욕심을 두지 않으니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73년생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세요. 85년생 가정에 웃음이 돌아옵니다.



50년생 잔병치레가 많을 때이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세요. 62년생 부모님께 문안 전 화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4년생 상복수가 있겠습니다. 86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51년생 치성을 드린 보람이 더욱 있겠습니다. 63년생 능력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시기입니다. 75년생 만나대길하셨습니다. 87년생 주위 사람이 자기를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52년생 용기 있는 자만이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64년생 모든 조건이 좋으니 큰일을 해냅니다. 76년생 우연히 재물이 들어옵니다. 88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3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65년생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77년생 이 고비만 넘기면 만사가 더욱 좋아집니다. 89년생 부지런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54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세요. 66년생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78년생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90년생 큰돈이 지출될 수 있으니 대비하세요.



55년생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 67년생 재물이 있습니다. 79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염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91년생 기회를 잃고 난 후 일을 피하니 허황할 것입니다.



56년생 성취될 듯하면서도 왠지 불길한 징조가 있습니다. 68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습니다. 80년생 여행은 될 수 있으면 떠나지 마세요. 92년생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57년생 감기 조심하고 음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69년생 많은 사람이 도우니 진정됩니다. 81년생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93년생 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고 신수가 좋습니다.



58년생 너무 과격한 행동은 삼가세요. 70년생 몸에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82년생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94년생 마음이 답답해지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59년생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심은 금물. 71년생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83년생 어렸을 때 친구와 만나게 됩니다. 95년생 남을 돕는 것이 곧 귀하는 돕는 것입니다.



김상회의 4季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받는데 몸속에 흑시 모를 문제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미리 대처하여 더 큰 병을 막기 위해서다. 건강검진의 역할을 하는 게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 명리학을 통한 사주 펼쳐보기이다. 태어난 순간의 시간 정보를 여덟 글자로 풀어낸 것이니, 그 안에는 음양과 오행의 균형이 담겨 있다. 이 균형은 단지 성격이나 운의 흐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몸이 어떤 기운에 치우쳐 있는지도 함께 보여준다. 그래서 사주는 몸과 마음의 특질을 미리 살펴보는 데 지표 역할을 한다. 음양오행의 조화를 사람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대입하여 해석한다. 타고난 기운의 균형을 통해 어떤 장기가 선천적으로 취약한지, 어떤 병에 걸리기 쉬운 기질인지를 읽어낸다.

위장은 토, 대장은 금, 췌장은 목, 소장은 화, 방광은 수의 기운으로 장기를 단순히 해부학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사주에 나타난 오행의 많고 적음, 서로 극하고 극을 당하는 관계를 통해서 어떤 장부가 상대적으로 약한지를 살핀다. 어떤 기운이 지나치고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를 알면,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지녀야 할지 지침을 얻을 수 있다. 평소 소화기가 안 좋거나, 몸이 쉽게 붓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정 부위가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은 사주에서 말하는 몸의 특질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주가 의사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다만 내 몸이 어떤 기운에 민감한지를 알려주는 참고서가 되니 해석을 바탕으로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조정하면 큰 병으로 가는 길을 비켜 갈 수 있다. 사주와 건강검진은 한 방향으로 가는 목적을 가지니 몸이 아프고 나서야 어렵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6	3	1
				7	
4	9	1			6
	5		8		
8	2	4		6	
	7		5		
7			9	8	1
	4				
5	2		3	4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레코드를 증가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2	9	1	7	8	8	2	9
2	9	8	2	8	9	7	1	6
7	1	8	6	2	9	9	8	2
8	7	9	8	1	2	2	6	9
2	9	6	7	9	2	8	1	
8	2	1	8	9	6	9	2	7
9	8	2	9	2	1	6	7	8
9	6	2	2	8	7	1	9	8
1	8	7	9	6	8	2	9	2

1	9	8	2	9	2	6	8	7
2	9	6	8	7	8	2	9	1
2	8	7	1	6	9	2	8	9
7	2	9	8	1	6	8	9	2
8	8	9	7	9	2	1	2	6
6	2	1	9	2	8	8	7	9
9	1	2	2	8	7	9	6	8
8	6	8	9	2	9	7	1	2
9	7	2	6	8	1	9	2	8

스페인 와인의 틀을 깨다... 토레스 '마스 라 플라나'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20

유럽 와인으로는 가성비 혹은 강렬한 햇살의 맛. 더 나가봐야 템프라니오와 가르나차 등 토착품종일까. 다음 아닌 스페인 와인에 대한 편견이다.

스페인 와인이 간혀있던 이런 틀을 깬 와인이 바로 토레스의 '마스 라 플라나'다. 토착 품종이 아닌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전세계의 인정을 받으며 스페인이라는 와인 산지의 잠재력을 증명해냈다.

스페인 와인너리 파밀리아 토레스에서 R&D 디렉터를 맡고 있는 미레이아 토레스 마차세크(Mireia Torres Maczassek·사진)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스 라 플라나는 토레스의 철학이 담긴 와인이자 토레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하는 와인"이라며 "가장 뛰어난 포도만 선별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농법까지 지속적으로 품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토레스는 1870년에 페네데스 지역에 세워진 와인너리다. 150년에 걸쳐 스페인 와인의 위상을 끌어올렸으며, 미레이아



스페인의 와인너리 파밀리아 토레스에서 R&D 디렉터를 맡고 있는 미레이아 토레스 마차세크가 와인 '마스 라 플라나'를 소개하고 있다.

아가 5세대다.

미레이아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며, 스스로 최고라고 여기지 않고 늘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자 마스 나 플라자를 양조하는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 와인으로는 전설을 쓴 '마스 라 플라나'부터 만나본다. 1979년 와인 파리 올림픽에서 보르도 그랑크뤼샤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그 와인이다.

사실 시작은 쉽지 않았다. 미레이아의



(왼쪽부터)마스 라 플라나 2019, 페페추얼 2019, 비냐 르 아브르 2021, 그란 무라예스 2020, 밀만다 2021, 비냐 지지 사도네이 2024. /안상미 기자

아버지인 미구엘 A. 토레스(Miguel A. Torres)가 불태는 토레스 포도밭의 종적 토가 국제 품종인 카베르네 소비뇽이 자라기에 이상적이었지만 선전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지금이야 싱글 빈야드 개념이 자리를 잡았지만 마스 라 플라나가 처음 출시된 1970년 당시만 해도 단일 포도밭으로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복잡한 품종과 뛰어난 숙성력으로 토레스는 물론 스페인 와인의 위상을 바꿔놓으면서 결국 선천에게도 인정을 받게 됐고, 이제는 토레스의 대표 와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마스 라 플라나 2019 빈티지는 잘 익은 과실 풍미에 타닌은 세련됐고, 흙내음과 미네랄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여운이 길게 이어진다.

마스 라 플라나가 혁신이라면 '그란 무라예스'는 전통의 복원이다. 고대 품종 복원 프로젝트에서 시작됐으니 말이다.

토레스는 1980년대 중반 지역 일간지에 이렇게 광고를 냈다. "어떤 품종인지 모르는 오래된 포도밭이나 방치된 포도나무가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달라." 제보를 받으면 현장으로 달려가 분석 작업을 거쳐 멸종한 토착 품종인지 확인했다. 미레이아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 피레네, 가루 등 카탈루냐 토착 품종을 복원해 와인으로 선보이고 있다.

그란 무라예스는 카리냥과 가르나차, 모나스트렐과 함께 복원된 토착 품종인 가루, 케로를 같이 블렌딩했다. 복합적

인 아로마와 풍미에서 각각의 역할을 꼬집어 내보면 이렇다. 카리냥이 검은 과실의 향과 구조감을 줬다면 가르나차는 붉은 과실의 풍미다. 모나스트렐로 좋은 산도가 잘 발현됐도록 했고, 가로는 향신료향을 더했다.

'페페추얼'은 100년의 시간이 농축된 와인이다. 80~100년 수령의 울드바인으로 양조했다. 한 그루에서 나오는 포도 자체가 극히 적는데다 세밀한 선별과정까지 거친다. 신선한 과실향과 좋은 산도로 꽤 높은 알콜 도수가 잘 느껴지지 않으며, 부드러운 타닌으로 우아함이 느껴지는 와인이다.

'밀만다'는 1980년부터 생산한 화이트 와인이다. 사도네이 100%로 피뚝했던 빈티지답게 입안에서는 불륨감 느껴지고, 여운은 길게 이어진다. 지금 먹기도 좋지만 20년 안팎까지 숙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 음식과의 궁합도 좋다. 밀만다 2021는 한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수와 함께 했다. 생동감 있는 산도로 울려진 청어와도 잘 어울린다. 그란 무라예스 2020와는 익힌 생선과 꼬막, 그리고 봄 제철을 맞은 두릅이다. 페페추얼 2019는 장어구이, 무계감 있는 마스라 플라나 2019와 는 한우구이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롯데시네마, 르세라핌 VR 콘서트 단독 개봉

극장내에서 공식 머치 출시

롯데시네마가 걸그룹 르세라핌(LE SERAFIM)의 첫 번째 VR 콘서트 'LES SERAFIM VR CONCERT : INVITATION'을 단독 개봉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시네마는 4세대 걸그룹 '르세라핌'의 퍼포먼스를 최첨단 VR 기술을 통해 눈앞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VR 콘서트'를 월드타워에서 단독 상영한다. 이번 영화를 통해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윙윙 울려 퍼지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으며 르세라핌의 히트곡을 새로운 차원의 VR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롯데시네마는 오는 4월 15일부터 월드타워 3관을 '르세라핌 VR 전용 상영관'으로 전격 전환해 보다 최적화된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곳곳을 르세라핌 비주얼로 꾸며 관람 전부터 세계관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극장을 방문한 팬들은 자유롭게 인증샷을 남기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VR 콘서트 사상 최초로 극장 내에서 공식 머치를 단독 출시한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스위트샵(매점)에서 뷰파인더, 렌티큘러 포토카드팩 등을 선보임으로써 공연의 감동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극장을 찾은 관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이어진다. 기본 특전부터 매주 다르게 구성되는 주차별 특전이 선착순 증정되어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예상된다. '르세라핌 VR 콘서트' 및 이벤트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롯데시네마 공식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 U+, '권오상의 심플렉시티' 1.5만명 방문

AI 기반 전시... 문화·예술경험 확장

LG유플러스는 서울 강남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 by U+'(바이 유플러스)에서 진행한 '권오상의 심플렉시티(Simplexity) : AI, 인간 그리고 예술' 전시가 약 1만5000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으며, '단순함(Simple)'과 '복잡함(Complexity)'을 결합한 '심플렉시티(Simplexity)'를 주제로 AI 기술과 예술, 인간의 감각을 결합한 전시 경험을 선보였다. 별도 예약 없이 무료로 운영된 점과 도심 한복판에서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접근성이 관람객 유입을 이끌었다.

특히 전시 전반에 적용된 AI 기반 관람 방식이 특징이다. 자체 AI 통화 서비스 '익시오(ixi-O)'를 활용한 AI 도슨트는 작가와의 실제 통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돼, 음성 AI를 통해 작가와 직접 대화하는 듯한 체험을 제공했다.

단순 청취형 오디오 가이드를 넘어 요약 정보 확인과 추가 탐색이 가능한 능동형 관람 구조도 도입됐다. 관람객들은 "글로벌 읽는 설명보다 이해도가 높고 작가와 직접 통화하는 듯해 신선했다"는



모델이 '권오상의 심플렉시티' 전시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반응을 보였다.

전시는 1·2차로 나눠 운영됐으며, 2차 전시에서는 '갤럭시 S26'과 협업해 디바이스 기능을 작품 감상 흐름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품 체험과 전시 콘텐츠를 결합한 방식으로, 기존 매장 중심 체험과 차별화했다는 평가다.

관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통신사가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문화·예술 경험을 확장하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무료 전시를 통한 문화 접근성 확대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한편 이번 전시는 더 트리니티 갤러리가 주관을 맡아 기획과 연출을 담당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올해 영화제의 방향성을 담은 공식 포스터와 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을 공개했다.

오는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매년 주요 환경 의제를 반영한 공식 포스터를 선보이며, 인류가 주목해야 할 시대적 담론을 제시해 왔다. 올해는 AI(인공지능) 등 기술 문명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자연과 기술'의 관계에 주목한 공식 포스터 '천공의 숲(사진)'을 발표했다. '천공의 숲'은 기술 발전 속에서 점차 자리를 잃어가는 자연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머지않아 자연이 인간에게

연민과 향수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영화적 상상에서 출발해, 기술이 빚어낸 인공 자연의 풍경을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대지의 나비 등으로 형상화했다.

올해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경쟁부문에는 전 세계 119개국에서 총 2133편(해외 1716편, 한국 417편)이 출품됐으며, 예선 심사를 거쳐 한국 경쟁부문 19편(장편 7편, 단편 12편), 국제 경쟁부문 21편(장편 10편, 단편 11편) 등 총 40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다.

/김서현 기자



▲ 글로벌 투자銀 "중국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낮아"… 중동사태 영향 제한적
▲ 기름값 소폭에 항공사 흔들…델타, 3년만 적자
·항공권 인상 확산 /사진 뉴시스

▲ 日, 지자체 어학 강습비 절반 부담…체류 외국인 지원 확대
▲ 알리바바, AI 데이터센터 구축…자체 칩 1만개 투입

▲ 한국 항공유 공급 감소에…6000마일 떨어진 캘리포니아 '비상'
▲ 이스라엘, 휴전에도 레바논 공격 확대…1000명 이상 사상



식품업계
스타셰프 협업 등
신제품 전략 고도화
L1



Life

HLB그룹
통합 주주간담회
바이오 생태계 강화
L2



창틀에 담긴 진경산수화... 화폭 속 정원에서 누리는 휴식

아파트의 미학(美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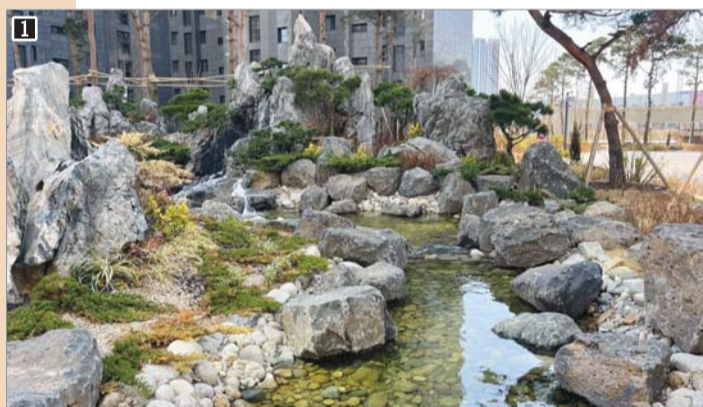
지제역 반도체벨리 풍경채 어바니티

지제역·고덕신도시 생활권 중대형 단지
뛰어난 기술력으로 '공원형 조경' 설계
자연친화적으로 꾸민 안정적인 휴식공간

석가산·생태연못·폭포 갖춘 진경산수원
티하우스에서 경관 바라보며 휴식 즐겨
단지 중심 잡아주는 든든한 팽나무 공원
계절에 따라 꽃 피우는 다양한 나무 식재



지제역 반도체벨리 풍경채 단지 내 핵심 조경인 '진경산수원'.



1 지제역 반도체벨리 풍경채 단지 내 '진경산수원'
2 이철희 작가의 작품 '사랑으로 사랑받는 사랑'.
3 단지 내 운동시설과 산책로.

/성채리 인턴기자

서울 양재역에서 M광역버스를 타고 약 1시간을 달려 평택지제역 직전 정거장에서 15분 정도 걸으면 '지제역 반도체벨리 풍경채 어바니티'가 나타난다. 주변에서는 가재지구 도시개발 공사가 이뤄지며 대규모 주택 단지 윤곽을 갖추가고 있다.

제일건설이 시공한 '지제역 반도체벨리 풍경채 어바니티'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총 1152가구로 조성됐다. 전용면적 84~103㎡로 구성된 중대형 중심 단지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가까워 직주근접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단지에서 캠퍼스가 보일 정도로 거리가 가깝다.

단지는 지제역과 고덕신도시 생활권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지하철역은 3km 이상 떨어져 있어 도보 접근은 쉽지 않다. 대신 약 10분 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면 고덕신도시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입주 전 전용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제일건설은 2025년 시공능력평가 조정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지제역 반도체벨리 풍경채 어바니티'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계된 공원형 조경이 특징이다. 석가산과 생태연못, 폭포를 갖춘 진경산수원과 잔디마당과 팽나무원, 어울림마당 등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다.

단지 초입에는 이유길 조각가의 '애(愛): 마주보다'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둥근 형태의 두 개체가 서로를 향해 서 있는 모습이다. 어머니와 자식을 연상시키며 가족, 연인, 사회 구성원이 마주보는 장면을 연출한

다. 특히 절단면을 거울 마감으로 처리해, 가까이 다가가면 주변 풍경이 함께 비친다. 서로를 바라볼 때 걸모습뿐 아니라 내면까지 투영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단지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주요 커뮤니티 시설을 1년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쾌적한 편의시설을 통해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과 거주 만족도를 높인다.

단지 입구를 지나 중앙으로 걷다 보면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시야가 트이는 지점에 핵심 조경인 '진경산수원'이 펼쳐진다.

석가산과 폭포, 연못이 결합된 수경시설이다. 크고 작은 돌 위로 물이 흐르고, 주변에 소나무와 관목이 배치돼 있다. 연못은 바닥의 자갈이 흰히 보일 만큼 맑고 깨끗하다. 곳곳에 설치된 작은 분수는 물의 흐름에 리듬을 더한다. 특정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각도에 따라 풍경이 달라진다.

인근 티하우스에서는 창틀을 액자 삼아 그림 같은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창밖을 향해 앉으면 창 너머 조경이 끌려 들어오듯 펼쳐진다. 내부는 나무 바닥으로 마감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준다. 은은한 나무 향이 더해져 자연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위쪽 동에서 내려다보면 진경산수원이 한 눈에 들어온다. 수목과 암석, 수경시설이 어우러져 한 폭의 진경산수화를 완성한다.

단지 한편에는 팽나무를 주인공으로 한 공원이 있다. 팽나무는 굵은 줄기를 중심으로 가지가 힘 있게 뻗어 올라가 단지의 중심

을 잡아준다. 기둥을 감싸듯 타고 오른 덩굴과 잎들이 어우러지며 세월의 흔적과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나무 사이로 둥글게 이어진 산책 동선을 따라 걸으며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입주민들에게 팽나무는 단지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다. 잎이 무성해지는 계절에는 그늘을 만들고 가지가 드러나는 시기에는 나무의 자체가 또 하나의 풍경이 된다.

계절에 따라 각양각색의 꽃을 피우는 나무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봄에는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트리고, 화살나무는 5월에 황록색 꽃을 피운다. 흰말채나무는 붉은 줄기로 색감을 더해 산뜻함을 준다. 다양한 수종으로 자연스럽게 계절감을 입히는 조경이다.

놀이시설은 '정글' 콘셉트의 놀이터와 어울림마당의 복합 놀이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전반적으로 나무 소재 디자인과 녹색 계열의 색채가 자연 친화적인 조경과 조화를 이룬다.

운동시설은 산책로와 연결돼 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기구 운동을 하다가 나무 아래 벤치에서 쉴 수 있는 구조다. 널찍한 잔디마당에서는 코트를 활용한 스포츠 활동도 가능하다.

지제역 반도체벨리 풍경채는 도심에서 한 발 떨어진 입지로, 반잡한 소음에서 벗어난 조용한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조경 공간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휴식 공간으로 기능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대한체육회,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문화 정보화 수준 평가 '우수'
▲'동계올림픽 2관왕' 쇼트트랙 김길리, 16일 KI A 홈경기 시구 /사진 뉴시스

▲'평균 24득점 11리바운드' DB 앨런슨, 프로농구 6라운드 MVP...첫 수상
▲NBA 오클라호마시티, 클리퍼스 꺾고 세 시즌 연속 서부 1위 확정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중도의 화가' 이월종 첫 예세이
▲봄꽃 기차 타고 '고양국제꽃박람회'로...코레일 관광개발